

# 의정소식

구민의 복리 증진과 복구 발전을 위해 심 없이 발로 뛰며  
최선의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2023년 상반기

제 30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http://council.bukgu.ulsan.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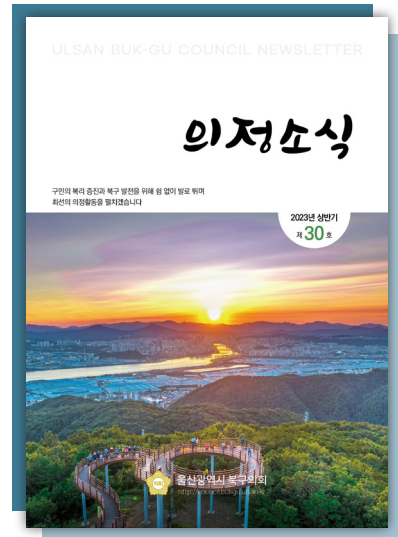
# CONTENTS

ULSAN BUK-GU COUNCIL NEWSLETTER



신흥사 가을(박문환, 북구 관광사진전 수상작)

- 04 발간사
- 05 제8대 의원현황
- 06 북구의회 연혁 및 조직
- 07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안건처리 현황
- 08 주요의정활동  
제210회 임시회  
제211회 임시회  
제212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 15 주요 안건처리 현황
- 19 현장 속으로
- 23 구정(서면)질문·5분 자유발언
- 50 2023년도 상반기 포토의정



표지설명 | **노을 명소**  
(권혁만, 북구 관광사진전 수상작)

발행일 | 2023년 상반기, 제30호  
발행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편집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회사무과장  
발행처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회사무과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연암동)  
전화 | 052-241-8975  
홈페이지 | <http://council.bukgu.ulsan.kr>



22만 북구주민 여러분의 성원 속에 출발한 제8대 북구의회가 어느새 출범 1주년이라는 첫 번째 반환점을 지났습니다.

민선 8기 출범 후 지난 1년은 북구의 발전과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토대를 닦은 기간이었습니다.

우리 북구의회 의원들은 코로나 대유행 속에서도 구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가슴에 새기며 북구 현장 곳곳을 발로 뛰어 왔습니다.

때론 해결이 어려운 민원에 막혀 발을 동동 구를 때도 있었지만 힘든 사안이라도 절차를 밟아 차근차근 해결하며 결국에는 주민과 함께 환하게 웃었던 기억이 대다수였습니다.

이는 우리 북구의회 동료 의원과 소속 직원, 그리고 더 나은 북구를 만들기 위해 정진하는 박천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북구의회 의정소식지 제30호에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활약한 북구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자료가 담겨 있습니다.

소식지 발간을 계기로 지난 반년 간을 돌아보면서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고, 보다 높은 신뢰로 주민 모두가 믿고 기댈 수 있는 의회로 성장하는 데 발판으로 삼겠습니다.

저와 북구의회 구성원들은 하반기에도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온 힘을 다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따뜻한 격려와 애정 어린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김정희**

▣ 제8대 [전반기] 북구의회 의원현황



**의 장**  
 성 명 김 정 희  
 연락처 010-3469-1522  
 선거구 농소1·송정동



**부 의 장**  
 성 명 이 선 경  
 연락처 010-8545-0266  
 선거구 농소 2·3동



**의회운영위원장**  
 성 명 박 정 환  
 연락처 010-9359-8572  
 선거구 농소 2·3동



**행정자치위원장**  
 성 명 박 재 완  
 연락처 010-9697-7139  
 선거구 농소1·송정동



**복지건설위원장**  
 성 명 조 문 경  
 연락처 010-5232-4625  
 선거구 비례대표



**의 원**  
 성 명 김 상 태  
 연락처 010-3854-1103  
 선거구 농소 2·3동



**의 원**  
 성 명 강 진 희  
 연락처 010-8610-4748  
 선거구 강동·효문·양정·염포동



**의 원**  
 성 명 손 옥 선  
 연락처 010-7760-6745  
 선거구 강동·효문·양정·염포동



**의 원**  
 성 명 임 채 오  
 연락처 010-4844-5405  
 선거구 강동·효문·양정·염포동

▣ 의원정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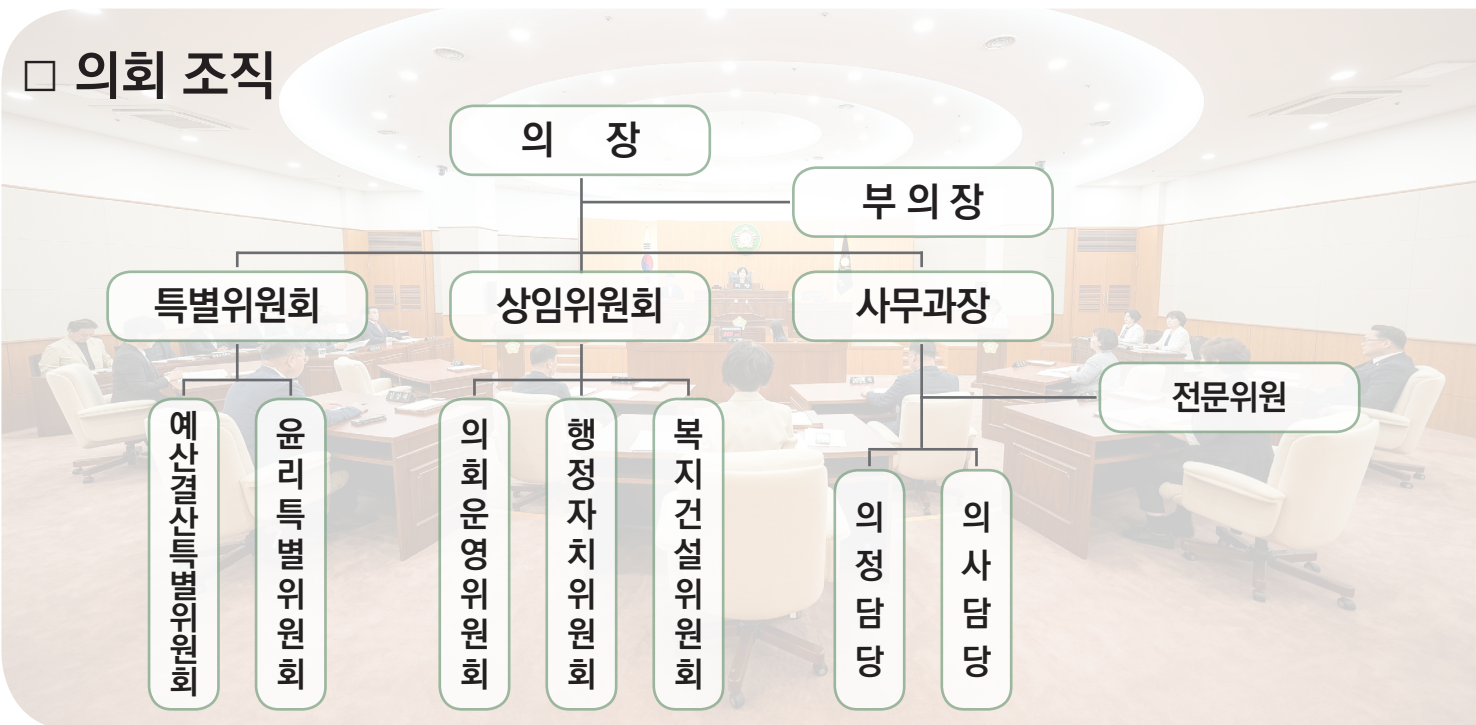
계	가선거구 (농소1·송정동)	나선거구 (농소2·농소3동)	다선거구 (강동·효문·양정·염포동)	비례대표
9	2	3	3	1

## □ 울산광역시 승격 및 북구의회 설치



- 1997. 7. 15 초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개원(7명)
- 1998. 3. 1 동구 염포동 선거구 복구 편입(8명)
- 1998. 7. 7 제2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개원(8명)
- 2000. 2. 21 송정동의원 사직(7명)
- 2000. 6. 8 송정동의원 보궐선거(8명)
- 2002. 7. 9 제3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개원(8명)
- 2006. 7. 3 제4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개원(7명)
- 2010. 7. 1 제5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개원(7명)  
- 임기 : 2010. 7. 1. ~ 2014. 6. 30.
- 2014. 7. 1 제6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개원(7명)  
- 임기 : 2014. 7. 1. ~ 2018. 6. 30.
- 2018. 7. 1 제7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개원(8명)  
- 임기 : 2018. 7. 1. ~ 2022. 6. 30.
- 2020. 1. 15 농소1·강동·송정동의원 사직(7명)
- 2020. 4. 15 농소1·강동·송정동의원 보궐선거(8명)
- 2022. 7. 1 제8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개원(9명)  
- 임기 : 2022. 7. 1. ~ 2026. 6. 30.

## □ 의회 조직





회기운영 현황(2023. 1. 1. ~ 6. 30.)						
구분	계		임시회		정례회	
	회수	일수	회수	일수	회수	일수
2023년 상반기	3	41	2	26	1	15

안건처리 현황											
회수	일수	계	예산안	결산	조례안 (규칙)	동의안 (승인)	결의안 (건의안)	보고	질문	5분 자유발언	기타
제210회 (2023.02.14.~02.24.)	11	13	0	0	2	0	1	1	0	5	4
제211회 (2023.04.20.~05.04.)	15	32	1	0	13	0	2	1	1	7	7
제212회 (2023.06.12.~06.26.)	15	27	0	2	13	1	0	0	1	4	6
합계	41	72	1	2	28	1	3	2	2	16	17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10회 || 임시회 2023. 2. 14. ~ 2. 24. (11일간)

울산북구의회가 2월 14일 본회의장에서 개최한 '제210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023년도 회기 일정에 돌입했다.

북구의회 각 상임위원회는 15일부터 22일까지 북구 각 부서로부터 올 한해 구정 주요 업무 계획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 받았다.

같은달 23일에는 상임위원회별로 현장방문활동을 진행했는데, 행정자치위원회는 송정동에 위치한 송정복합문화센터 건립 현장, 복지건설위원회는 달천동 농공단지에 신축된 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24일에는 손옥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북구의회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북구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과 규칙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박정환 의회운영위원장이 '천마산 편백숲 보존, 북구청이 적극 나서야', 이선경 부의장이 '경계 지역 분쟁 해결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조문경 복지건설위원장이 '강동 가자미의 판로 확대를 기대하며', 임채오 의원이 '중산스포츠타운 조성은 축소가 아닌 원안대로 추진해야 합니다'를 주제로 각자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11회 || 임시회 2023. 4. 20. ~ 5. 4. (15일간)

울산북구의회가 4월 20일부터 5월 4일까지 제211회 임시회를 열고 북구청이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북구는 앞서 제1회 추경안으로 339억4천97만원을 증액한 5천125억1천390만원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지만 5월 4일 열린 2차 본회의에서 25억1천430만2천원이 삭감 의결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정희 의장이 대표로, 이선경, 박재완, 조문경, 임채오, 김상태, 손옥선 의원이 함께 발의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건의안'과 임채오 의원이 대표로, 김상태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일본의 일방적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결의안'이 채택됐다.

1차 본회의에서는 강진희 의원이 '불법건축물이 된 노후주택 옥상 지붕의 양성화에 대하여', 손옥선 의원이 '일상 속에 파고든 마약! 대비 철저히 해야', 이선경 부의장이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활성화 방안 고민해야', 김상태 의원이 '황어 떼의 출현, 동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시급하다'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2차 본회의에서는 강진희 의원이 '공무원 노조에 대한 북구청의 징계처분을 강력히 규탄한다', 조문경 복지건설 위원장이 '주민과 함께 원전교부세 확보합시다',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지방자치! 견제와 균형의 원칙 세우자'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12회 || 정례회 2023. 6. 12. ~ 6. 26. (15일간)

울산북구의회가 6월 12일부터 26일까지 15일간 '제212회 1차 정례회'를 열고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사했다.

이번 정례회에는 회기 결정의 건 등 기본안건 5건과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조례안 등 17건의 안건이 접수돼 상임위원회별 심의를 받았다.

김정희 의장은 개회사에서 “결산은 다음해 예산 편성과 장기 재정계획 수립에 의미 있는 지표”라면서 “구정 주요 사업을 폭넓게 분석해 예산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취지와 목적에 맞게 집행됐는지 심사해 달라”고 동료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개회식에 이어 열린 1차 본회의에서는 박정환 의회운영위원장이 ‘첨단산업단지로 발전하는 북구와 농민의 동반협력 성장을 바라며’, 임채오 의원이 ‘북구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에 적극 나서라’, 이선경 부의장이 ‘꿈수로 지어진 매곡배드민턴장의 비애’, 강진희 의원이 ‘윤석열 정권은 무자비한 건설노조 탄압을 멈춰야 합니다’를 주제로 5분 자유 발언에 나섰다.

강진희 의원은 ‘북구 시설관리공단 수영강사 계약해지와 관련하여’를 주제로 구정질문을 펼치기도 했다.

##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정환)는 지난 상반기 제210회부터 212회까지의 임시회 및 정례회에서 모두 5차례의 회의를 열어 10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박재완)는 지난 상반기 제210회부터 212회까지의 임시회 및 정례회에서 모두 17차례의 회의를 열어 34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 복지건설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조문경)는 지난 상반기 제210회부터 212회까지의 임시회 및 정례회에서 모두 17차례의 회의를 열어 29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상반기 제210회부터 212회까지의 임시회 및 정례회에서 모두 4차례의 회의를 열어 8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 제210회 임시회 주요 안건처리 현황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원안가결 [손옥선 의원 외 8명]**  
\*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2022.11.15.시행)에 따라, 7급 이상 시험의 응시연령을 하향 조정하고, 응시요건(자격증)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계 조문을 정비.
-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기존 상위법령인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이 분리·제정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변경된 법 규정을 반영하고, 중간소음 갈등 해소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정대상 확대 및 신청정보 간소화를 통해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고자 함.
-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 ▶ 보고**  
\* 지역주민의 건강수명 연장 및 건강격차 해소를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4개년 중장기 기본계획인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 의견 수렴과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의회에 보고.
-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원안가결**  
\* 202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북구의 결산에 따른 공정한 검사를 위하여 대상자격을 갖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기 위함.
- **중산스포츠타운 차질 없는 조성 촉구 건의안 ▶ 원안가결 [김상태 의원 외 3명]**  
\* 북구의 숙원사업인 ‘중산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은 북구 인구 22만, 도시의 품격에 맞게 복합스포츠타운으로 조성되어야 함. 임반 발파 등 공사비 증액 이유로 북구청은 처음 계획 규모보다 대폭 축소하여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힘. ‘중산스포츠타운 조기 완성’은 민선 8기 현 구청장의 선거공약이며 북구 발전에 역행하는 행정 판단이 아닌 적극적 행정으로 중산스포츠타운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촉구함.

## 제211회 임시회 주요 안건처리 현황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원안가결 [박정환 의원 외 8명]**  
\* 의장단 후보자 등록 시 의원당선인을 포함하고 중복 등록을 방지하여 선거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수정하는 등 의회 운영상의 미비점들을 보완하기 위함.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김상태 의원 외 8명]**  
\* 2023년 1월 1일자 울산광역시 북구의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 상임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박재완 의원 외 8명]**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을 통한 의원의 정책개발 및 연구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북구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손옥선 의원 외 8명]**  
 \*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사항인 「79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 개선 권고(안)」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적용하기 위함.
-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구정발전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한 정책자문 기능을 강화하고자 제명을 “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구정의 주요정책과 현안사항에 대한 제안과 자문 역할을 추가하여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구청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지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주민제안사업 발굴 및 선정에 있어 ‘주민자치회’와 ‘주민참여예산 동 지역위원회’의 역할이 중복되어 ‘주민자치회’가 ‘지역위원회’의 역할을 하도록 하고,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공론화과정을 거친다는 뜻을 담고자 ‘동 지역위원회’의 명칭을 ‘지역회의’로 변경하며, 주민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현실적인 유인 요인으로 위원회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우리 구 기업 투자 유치와 관련하여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위원의 참여를 배제시키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기업 및 투자유치 활동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구민대상 시상 시기를 격년제로 변경하고, 수상 후보자 추천 기준을 강화하여 분야별 대표성을 갖춘 구민대상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모바일테크밸리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부지 내 천곡동과 달천동의 경계를 조정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생활문화센터(송정생활문화센터)가 추가 건립되어 2023. 5월 개관 예정임에 따라 향후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시설 운영에 관한 일부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상위법령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22. 7. 11. 개정, ‘23. 4. 1. 시행)되어 ‘민원실의 운영’ 관련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민원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민원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 원안가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21. 9. 24, 시행 ‘22. 3. 25.)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기 위함.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2021. 9. 24.폐지
- **울산광역시 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상위법령인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제4항에서 조례로 위임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부 개정하고자 함.
-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호계역 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 ▶ 보고

\* 기존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은 비법정협의회로, 전담 인력과 별도 예산이 없어 사업 추진에 제약이 있고, 결속력 또한 약화될 우려가 있어, 조직의 공신력 확보와 체계적 관리로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원전관련 제도개선과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여 지방자치 발전에 공헌하고자 행정협의회로 전환·운영계획이며,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회원 간 협의를 통해 정한 규약을 의회에 보고.

●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건의안 ▶ 원안가결 [김정희 의원 외 6명]

\* 울산은 세계 최대 원전 밀집 지역이며, 2014년 5월 개정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라 방사선비상 계획구역에 포함되어 방재훈련 등 방사능 방재훈련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 정부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하고, 국회에서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신속히 가결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자 함. 또한, 원전정책 추진 시 원전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적극 보장할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건의함.

● 일본의 일방적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결의안 ▶ 원안가결 [임채오 의원 외 1명]

\*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 방류 처분하기로 공식 결정하여 대한민국을 비롯한 주변국 국민의 생명과 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 일본 정부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국제사회 및 인접 국가의 동의 없는 오염수 해양 방류 추진을 중단하고, 정보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제사회의 객관적인 검증을 받을 것을 촉구하고자 함. 대한민국 정부는 해양 및 대기오염의 우려가 있는 국가가 참여하는 조사기구를 구성하여 안전 문제를 검증하고, 일본 정부와 다각적인 협의를 통해 주변국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건의함.

제212회 정례회 주요 안건처리 현황

●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원안가결

\*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에 의거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의회 승인을 받고자 함.

●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원안가결

\*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사회적경제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담당 국장으로 변경, 담당 부서장을 간사로 명시하여 타 구·군 간 위원구성 동일성 및 사회적경제 정책 수립과 심의·자문 등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준용 조례명 현행화 등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과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제외기준을 명확히 하고, 관계 법령 띄어쓰기 등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상위 법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2023. 3. 2. 시행) 개정에 따라 여비 지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사도움 서비스 대상을 전 구민으로 확대하고 공공시설물 정비 업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시 합동 OK 현장서비스의 날' 운영 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송정복합문화센터 내 4~5층 체육시설 조성(실내다목적구장, 농구장 등)에 따라 시설의 사용시간, 사용료를 추가하고, 일부 조문을 현행에 맞게 보완하여 효율적인 시설의 운영·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신규 조성되는 2개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는 등 도서관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도서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농촌용수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상위 법령인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관련 법령인 「지하수법」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상위 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서 조례로 위임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재난발생시 표준화되고 체계적인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위함.
-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상위 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금운용 회계공무원 관직을 재정비하는 등 기금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3대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마친 '병역명문가' 가문이 구민에게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기준을 현실화하고,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 내용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위한 예산 이용 승인의 건 ▶ 원안가결**  
\*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위한 예산의 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의견없음**  
\* 「경관법」 제15조에 따라 경관계획의 타당성 검토 및 여건 변화에 부합하도록 5년마다 재정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경관계획 변경 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있는 바, 현재 용역 추진 중인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 설맞이 복지시설 위문활동



울산북구의회가 설을 앞두고 복구지역 복지시설을 방문해 따뜻한 정을 나눴다.

김정희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1월 18일 ‘설맞이 복지시설 방문활동’으로 천곡지역아동센터와 호계그린 나래 청소년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시설 운영 애로사항을 듣고 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시설별로 휴지와 핸드 타월 등의 생필품과 A4용지, 학용품 등의 격려물품도 각각 전했다.

이번 격려 방문은 북구의회가 매년 설과, 추석을 앞두고 진행하는 명절맞이 복지시설 위문활동이다.

김정희 북구의회 의장은 “모두가 행복해야 할 명절에 복구지역 모든 주민들이 소외받지 않고 따뜻하게 설을 보낼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챙겨 보겠다”고 말했다.



##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울산북구의회가 복구청의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검토할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했다.

김정희 북구의회 의장은 2월 17일 의장실에서 임채오 의원과 이준엽, 이원형 회계사 총 3명을 2022회계연도 복구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위촉한 것으로 의원 1명과 공인회계사 2명으로 구성했다.

위원들은 3월 29일부터 4월 17일까지 20일간 활동하면서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 서류 △금고 결산 등을 확인했다.



## 송정문화센터·장애인작업장 현장방문



울산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가 2월 23일 제210회 임시회 현장 활동을 펼쳤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송정동에 위치한 송정복합문화센터 건립 현장을 방문해 각 층을 오르내리면서 불편사항을 살피는 한편, 공사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복지건설위원회는 달천동 농공단지에 신축된 북구장애인보호 작업장 현장을 찾아 시설 곳곳을 살펴 보면서 근로 장애인을 위한 안전보호 시설과 근로 환경을 확인했다.



## 국민권익위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 서약



울산북구의회가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청렴서약서에 서명했다.

북구의회는 3월 15일 의회 다목적실에서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이 참가한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주관으로 '2023년 청렴교육'을 진행했다.

(사)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인 이지문 강사가 '부패방지법 및 행동강령'을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특강에 이어 지역 주민의 대표로서 공정한 업무 태도를 약속하고 의정활동을 청렴하게 하겠다고 다짐하는 내용으로 의원들이 직접 청렴 서약서에 서명을 했다.

## 북구노인복지관 경로식당 배식봉사활동



울산북구의회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처음으로 대면 급식 봉사활동에 나섰다.

북구의회는 3월 22일 1분기 자원봉사활동으로 북구노인복지관 경로식당 '어르신행복식당'에서 배식 봉사활동을 펼쳤다. 코로나 19로 인해 2019년 이후 처음으로 배식봉사를 펼친 것이다.

의원들은 어르신들의 원활한 식사를 돕기 위해 식당에서 마련한 음식을 각 식판에 정성스럽게 옮겨 담았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빈자리를 안내하고 식사 후 식판을 퇴식구로 나르는 것을 도왔다.

## 강동 바다도서관·당사항 현장방문



울산북구의회가 5월 2일 제211회 임시회 현장 방문활동으로 바다도서관과 북구장애인복지관, 그리고 당사·어물항 어촌뉴딜 300사업 대상지인 당사항 등을 찾았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산하동 1006-5 일원에 국·시·구비 총 42억 6천200만원을 들여 지은 강동바다도서관 건립 현장을 방문해 시설 곳곳을 오르내리며 이용자가 불편한 사항은 없는지 살펴봤다.



복지건설위원회는 창평동 764-4 일원에 건립 중이던 북구장애인복지관 공사 현장을 방문한 데 이어 어촌뉴딜 300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어항 정비와 해안산책로 조성, 당사해양공원 특화경관 조성사업이 펼쳐지고 있는 당사·어물항 일원을 찾아 현황을 점검했다.

## 초등학교 등굣길 교통안전봉사



울산북구의회가 2분기 자원봉사활동으로 초등학교 등굣길 교통 안전지킴이 활동을 펼쳤다.

북구의회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6월 9일 아침 두 개조로 나눠 북구 상안초등학교와 천곡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등교생 교통안전지도 활동에 나섰다.

이번 봉사활동은 ‘봉사하고 솔선수범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 북구의회가 매분기 진행하는 자원봉사활동의 하나다.

김정희 의장은 “미래를 이끌어 갈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앞으로도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비즈니스센터·폐선부지 활용 현장 방문



울산북구의회가 6월 22일 제212회 1차 정례회 현장방문활동으로 중소·창업기업 성장 지원 사업 현장과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일원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행정자치위원회는 매곡일반산단 내 자동차부품기술연구소 2층과 3층에 위치한 스타비즈니스센터를 방문해 입주 기업 및 창업자들과 만나 건의 및 애로사항 등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다.

복지건설위원회는 울산숲 조성 등 동해남부선 폐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 현장을 찾아 폐선부지 사업 전반을 브리핑 받고 약 3.6Km 구간을 걸어 보면서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 구정질문

질문의원 : 강진희 의원  
질문일시 : 2023. 6. 12.  
질문요지 : 북구 시설관리공단 수영강사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 북구 시설관리공단 수영강사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  
김정희 의장님, 이선경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박천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보당 강진희 의원입니다.

**Q1.**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조(목적)에 의하면,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북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구민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나옵니다.

최근 북구 시설관리공단은 수영강사에 대한 부당한 계약해지와 수영강사뿐만 아니라 회원들과의 소통 부재로 주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한 상황입니다. 과연 지금의 북구시설관리공단이 구민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여 주민 위에 군림하는 시설관리공단이 아니라 주민들을 위한 시설관리공단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시설관리공단 이사회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회는 이관우 이사장, 당연직 공무원으로 초금희 기획재정국장, 허사영 행정지원국장이 들어가고 있고 임명직으로 4명이 들어가고 당연직 감사로 김성철 기획예산과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관우 이사장이 취임한 후 이사회가 총 9번 개최되었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정관」제4장 이사회 제26조(의결사항)에 의하면 이사회는 '공단의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 예산 및 결산, 정관 변경, 조직, 기구 및 정원, 규정의 제·개정, 폐지' 등 공단 운영에 관한 중요한 11가지 사항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9번의 이사회 중 3번이 강사 계약해지의 건으로 열렸습니다. 이사회에서 강사 계약해지 여부를 심의

한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A1.**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이사회 운영 규정」제7조제11항 '기타 공단운영에 필요하다고 이사회가 인정하는 사항'에 근거하여 이사회에서 강사 계약해지 여부를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사회는 공단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공단 운영의 주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심의할 수 있습니다. 공단 체육강사의 강습 실태 및 문제는 체육센터 운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계약해지 또한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객관적인 의견 개진 및 심의를 위해 이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Q2.** 두 번째, 공공기관은 사기업과 달리 모범사용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사람을 채용할 때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계약해지할 때도 신중 또 신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 31일자로 계약해지된 강사의 경우 민원이 들어왔으며 확인 공문을 보내어 제출하라고 하는 등 일반적이지 않은 계약해지 과정을 거쳤는데, 계약해지 사유와 절차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A2.** 시설관리공단에서는 3월 21일, 해당 강사가 오전 11시 강습반 수업 시간을 수 십 차례 미이행(시간단축)하였다는 내용의 민원 및 탄원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4월 18일, 해당 진정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해줄 것을 해당강사에게 요청하였으나 소명 확인이 없었으며 또한, 5월 3일 이사회에 참석하여 사실관계를 소명할 것을 재차 통지하였고 해당 강사는 당일 이사회 참석하여 소명하였습니다.

다만, 확인이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강사에게 자료 제출 및 CCTV 영상 공동 확인을 요구하

였으나 일부는 소명이 부족하였으며 CCTV 확인에 대해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최종 5월 17일 이사회를 개최하였으며, 이사회에서 해당 강사는 10번 이내로 축소 수업을 했다고 인정하였으며 이는, 계약서 제9조 계약해지 조항 가항 '공단과 사전 상의없이 강습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잦은 휴강 등으로 수강생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프리랜서로서의 복무 책임 강화 필요성 등에 따라 해당강사의 계약해지가 가결되었습니다.

**Q3.** 세 번째, 2023년 2월 9일 제28회 이사회 심의안이 울산광역시 북구시설관리공단 체육강사 계약서 변경(안)입니다. 이사회에서 계약서 변경 심의를 하기 전 체육강사들에게 의견수렴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A3.** 이사회에서 계약서 변경(안)에 대해 심의를 한 것은 현 계약서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설명하고 이사회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한 것입니다. 또한, 최근 시설관리공단과 강사와 2회에 걸쳐 계약서(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 부분은 사전에 충분한 공감대를 얻어 과거 계약서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강사들이 불이익을 얻지 않도록 합리적인 결정을 했어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소 미흡했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Q4.** 네 번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주민들을 대하는 자세,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발언 등 공공기관의 장으로서 자질이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현 이사장은 박천동 구청장 후보시절 선대본부장을 맡았고, 구청장 당선후 인수위원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은인사라는 의구심을 주민들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A4.** 이사장 임명은 합법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지만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한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적법한 절차와 심사를 거쳐 임명되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 3에 따라 구의회에서 3명, 공단 이사회에서 2명, 구청장이 2명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임원추천위원회

에서 이사장의 응시자격 요건을 정하고 공개모집을 통해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하게 됩니다. 임원추천위원회에서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결과 최종 2명을 추천하였으며, 그중 상위 득점을 받은 현재 이사장을 임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사장 임명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및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임원 추천위원회설치운영 규정」에 따라 적법절차에 따라 임명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Q5.** 다섯 번째, 5월 30일 오전 11시 30분경 회원들과 수영강사와 긴급 간담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주민들에게 약속을 하였습니다. 수영강사의 부당한 계약해지와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A5.** 수영강사의 계약해지는 공단 이사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다만, 조속한 해결을 위해공단에 해결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하였고, 합리적으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공단에서 강사들과 계약서(안)에 대해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가 쉽지는 않겠지만, 원만한 결과를 도출하여 노사관계를 개선하고 시설이용자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서면질문

질문의원 : 강진희 의원

질문일시 : 2023. 4. 3.

질문요지 : 중산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 중산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북구 중산동 산126번지 일원에 추진되고 있는 중산스포츠타운은 우리 북구 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주민 휴식공원으로의 역할 등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2022년 3월에 실시한 지질조사 결과 암반으로 인한 발파 비용과 발파암 처리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중산스포츠타운의 규모를 대폭 축소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2월 지역 국회의원이 직접 나서서 '중산스포츠타운 축소건립에 따른 입장문'을 발표하였고, 북구의회에서도 '중산스포츠타운 차질없는 조성 촉구건의안'이 발의되기도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고심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북구청의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190억 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고도 애초의 계획과는 완전히 축소되어 스포츠타운의 역할을 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운동장 하나 조성하는데 19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면 북구주민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그럴거면 다른 장소를 물색하여 추진하는 것이 맞습니다. 운동장 하나만 조성할 것이 아니라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암반을 제거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중산스포츠타운 부지 채석사업에 따른 경제성 분석 용역'을 제안드리며, 서면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중산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지반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해당부지에서 나오는 암석은 레미콘 또는 도로포장용으로 적합하다는 의견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채석사업에 따른 경제성이 있는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본 결과 경제성이 있을 것 같으니 정확한 산출을 위한 경제성 분석용역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박천동 북구청장께 질의 드립니다. 이러한 용역을 하게 되면 또 시한이 지연되어 사업이 늦

어진다는 이유를 들지는 모르겠지만, 빠르고도 효율적인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해당 부지의 지질을 조사한 업체의 경우 이미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할 수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도 신속한 진행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됩니다.

첫 단추를 잘 못 꿰면 다시 돌이킬 수 없듯이 다시 한번 방법을 찾아 제대로 해 보자는 주민들의 절실한 요구이기도 합니다.

박천동 구청장의 현명한 답변을 바라며 서면질의를 마치겠습니다.

**Q1.** 중산스포츠타운이 최종 어떤 규모로 조성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A1.** 사업면적(84,169㎡)은 변경 없으며, 주요시설로는 축구장(45×90) 1면, 주차장, 관리동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 현재 계획하고 있는 축구장 규모는 염포운동장보다 조금 크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확장을 추진(실시설계용역에 반영)하고 있음

**Q2.** 현재 중산스포츠타운 조성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A2.** 사업내용 변경(축구장 1, 야구장 1 → 축구장 1)에 따라 실시설계용역 변경 계약 후 실시설계 추진 중이며, 관련 용역(문화재 표본조사, 설계의 안전성 검토 및 안전보건대장작성, BF예비인증)도 추진 중입니다. 후속 공정(설계의 적정성 검토 및 경제성 검토, 공사원가 사전검토, 지방건설기술심의,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등)을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토지협의 보상도 추진 중에 있으며, 약 60% 협의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 협의 보상 불가 시 실시설계인가 후 토지수용절차 이행

**Q3.** 채석사업을 통한 경제성이 어느 정도라도 확보된다면 토목공사비가 현저히 절감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애초의 계획대로 복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스포츠타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최대한 빠른 시한 내 '중산스포츠타운 부지 채석사업에 따른 경제성 분석용역'을 실시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A3.** 암석 공개 매각 등을 활용한 공사비 절감 방법은 불확실성이 크며, 중산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사업현장 여건에 맞지 않습니다.

- ☞ 암석 공개 매각 대금을 공사비에 산정
  - 판매처 불분명, 협상조건의 변수(단가변동, 운반 거리, 발파암 파쇄 여부, 상차 및 운반 조건 등) 등을 검토했을 때 공사비에 산정하는 것은 불확실성이 매우 큼
  - 공사비에 산정할 경우, 계획대로 암석 매각이 되지 않으면 추가 공사비 확보 등으로 공사 중단 및 지연 불가피
  - 향후 공사 추진 시 골재 매각이 가능할 경우 세입 처리하여 복구 재원으로 활용 가능
- ☞ 골재생산을 위한 사업현장 여건
  - 골재 판매를 위해 사업현장에서 직접 골재 생산 시 약 300일 소요(하루 8시간 기준)된다는 검토 결과 및 사업현장에서의 생산 및 적재 공간 부족으로 골재 생산 비용 및 공사 지연에 따른 공사비 증가 불가피

《 인근 공사현장 사례 참고 》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공 중인 다운공공주택 지구의 경우, 토석매각입찰(낙찰자가 상차 및 운반 조건)이 2차례 있었으며, 1차는 1번의 유찰 후 감정평가(2,000원/㎡) 보다 낮은 단가(500원/㎡)로 낙찰되었으며, 최근 2차 입찰은 6번 유찰에 따라, 자체처리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 현시점에서 중산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은 사업추진의 현실성 및 실현가능성에 주안점을 두어야 합니다.
- ☞ 타당성조사 및 중앙투자심사 긍정적 결과 도출 불확실로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못할 시 사업 추진 불가

- 타당성조사(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중앙투자심사(총사업비 200억원 이상) 대상이며, 최소 1년 이상 소요

☞ 추가 국비 확보 가능성

- 기존 국비를 신청한 사업은 중복하여 국비를 신청할 수 없음. 또한 2023년부터 체육진흥시설 지원 사업은 지방 이양됨에 따라 현실적으로 추가 국비 확보는 불가

☞ 토지보상 및 확보된 국비 반납

- 협의 불가로 미보상 된 토지는 실시설계인가 후 수용절차를 거쳐야 하나, 사업방향의 논란 등으로 실시설계가 지연되는 경우, 토지 확보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연기로 확보된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음

※ 2022년에 교부받은 국비 32억원은 2024년까지 집행

● 상기와 같은 사유에 따라 '중산스포츠타운 부지 채석사업에 따른 경제성 분석 용역'은 불확실성 및 현장 여건 등을 감안했을 때 실효성이 적다고 판단되며, 현재 상황에서 현실성과 실현가능성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 약 190억원으로 축구장 1면을 조성한다는 것이 경제성 측면에서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는 생각하나, 약 300억원을 추가해서 야구장 1면을 추가 조성한다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지도 의문이 남습니다. 현재 직면한 상황에서 실현가능성 등 종합적인 사항들을 고려하여 최선의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으니, 의원님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 5분 자유발언

발언의원 : 박정환 의원

발언일시 : 제210회 임시회(2023. 2. 14.)

발언요지 : 천마산 편백숲 보존, 복구청이 적극 나서야

# 천마산 편백숲 보존, 복구청이 적극 나서야

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 힘! 박정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달천마을 주민의 직접적인 피해와 나아가서는 우리 북구 주민과 울산 시민의 주말 휴식처로 각광받고 있는 천마산 편백숲의 피해가 우려되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정확하게는 2022년 12월 14일입니다.

저의 친가 쪽 식구들이 살고 있는 경주시 외동읍의 고향 친구 겸 청년회장에게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외동읍 녹동리 산 29-6번지에 '하수슬러지 폐기물처리장'이 들어서는 걸 아느냐는 것입니다.

급하게 알아보니 우리 북구의 자랑이라 할 수 있는 천마산 편백숲과 불과 직선거리로 500m 떨어진 곳에 하수슬러지 폐기물처리장이 건립되고 있었습니다.

지난달 5일, 저는 농소3동 주민들과 함께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을 찾았습니다.

경주시에 따르면 현재 건립 중인 폐기물처리장은 민간업체가 2020년 6월에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으로 사업계획 적합 통보를 받고 공사에 착수한 상태이며 지난해 말 완료될 예정이었습니다.

다만, 폐기물 처리업체 측의 슬러지 건조 방식이 당초 계획과 다르게 처리돼 있어 현재 경주시가 사업변경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에 저의 지역구인 농소3동 주민들은 행정구역만 '외동읍'이지, 사실상 집 근처에 폐기물처리장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주시의 반응은 미온적입니다.

현행법상 폐기물처리장 처리용량이 하루 100톤 이상일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포함되지만, 해당 시설은 80톤으로 이는 주민설명회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해당 시설은 일반공업지역에 건설하기 때문에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도 주거지역을 포함한 기타지역과는 다르며, 환경영향이 아예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우리 복구청 관계부서에 확인한 결과 "얼

마 전 농소3동 주민들의 민원 및 동향을 확인하고 경주시청에 환경적 피해 예방과 관련된 주민 요구를 적극적으로 전달할 상황"이라며 "경주시에 먼저 공문이 온 바는 없으나, 주민 피해가 예방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의견을 전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저와 농소3동 주민들은 이 답변을 듣고 복구청의 태도가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는 모양새라 허탈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에 지난주 월요일 저를 포함한 북구의회의 의원 3명은 달천마을 통장과 함께 급히 경주시의회를 방문했습니다. 경주시의회 의장과 부의장, 문화도시위원장, 경주시 자원순환과 관계자가 함께한 자리에서 이번 사안에 대한 경주시의 행정 처리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앞으로의 진행 과정을 공유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경주시의회에서는 경주 관내가 아니다 보니 이번에 들어서는 하수슬러지 폐기물처리장과 울산 북구의 달천 편백숲이 그렇게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는지 미처 몰랐다고 하고, 경주시 자원순환과에서는 현재 우리 복구청에서 보낸 협조 요청 공문에 답변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경주시 관계자의 말대로 이번 건은 법만 가지고 따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법은 늘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난 뒤에나 개정을 하고 이를 보완하는 데 오랜 시일이 소요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이 완비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 복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없습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유사사례가 없었는지, 법 외에 해결방안은 없는지 고민은 해보셨습니까?

주민들이 복구청에 바라는 것은 큰 것이 아닙니다.

복구청의 성의 있는 자세와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많은 고민 끝에 도저히 처리할 수 없다면 그러한 고민의 과정을 미리 주민들에게 알려 동의를 구하고, '복구청이 과연 우리 주민의 편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불안이나 걱정은 어쩌면 자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더 그럴 수 있습니다. 경주시에

요청하여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이 내용들을 수시로 주민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최선의 노력 끝에도 어쩔 수 없이 하수슬러지 폐기물처리장이 건립되어야 한다면, 완공 후 혹시 발생할지도 모를 악취와 폐수, 대기오염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응체계 구축 등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천마산 달천 편백숲은 울산 시민의 힐링 휴식 공간으로

더욱더 발전시켜야 하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북구청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우리 북구의회도 이 사안을 해당 지역주민들에게만 맡겨놓지 말고, 함께 힘을 모아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농소3동 주민과 특히, 달천마을 주민을 대신하여 간곡히 호소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5분 자유발언

발언의원 : 이선경 의원  
 발언일시 : 제210회 임시회(2023. 2. 14.)  
 발언요지 : 경계 지역 분쟁 해결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 경계 지역 분쟁 해결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  
 김정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북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천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소2·3동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이선경 의원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경주시 외동읍 녹동리 산 29-6번지에 건설되고 있는 ‘하수슬러지 폐기물처리장’을 아십니까?  
 경주에 건설되는 폐기물처리장 이야기를, 왜 울산 북구의회에서 하는지 의아해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유는 하수슬러지 폐기물처리장이 건설되고 있는 외동읍 녹동리 산 29-6번지가 우리 북구 달천 편백숲과 직선거리로 불과 500m 떨어진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북구는 달천 천마산 편백숲을 주민들을 위한 휴식과 힐링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오랜 시간 많은 예산과 정성을 들였습니다.  
 피톤치드 가득한 울산 북구의 명품 숲으로 산림욕장, 숲속도서관, 편백숲길쉼터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조성되어 지난해에는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안심여행지’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우리 울산 북구의 자랑인 달천 편백숲 바로 코앞에 경주시민들도 꺼려하는 하수슬러지 폐기물처리장을 짓겠다고 허가를 내주면서도 처리용량 100톤 미만은 환경영향평가나 주민설명회가 법적 의무가 아니라는 이유

로, 북구청과 달천마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경주시의 행태는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구 경계 북쪽에 위치한 이 시설 때문에 사실상 악취와 대기 및 수질오염 등 실질적 피해는 고스란히 달천마을 주민과 천마산 편백숲, 만석골 저수지 등을 이용하는 울산시민들이 떠안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주시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비단 경주시의 이러한 행태는 이번 한 번이 아닙니다.  
 2007년에는 북구 중산동과 불과 2km 떨어진 외동읍에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을, 2000년에는 북구 천곡동에 인접한 문산리 일원에 공단조성사업 허가를 내주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 추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음, 먼지, 대기오염, 차량정체가 야기되고 있으며 여름철 우수기에는 오염물질을 포함한 각종 쓰레기가 떠내려오는 등 인근 이화, 약수지역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에 북구청은 경주시에 수차례 공문을 보내고 대책과 시정을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국회의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발의안의 주요 내용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와 관계없이 부지 경계로부터 2km 이내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계가 해당될 경우 인근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입지선정위원회에 인접 지역 주민 또한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현재 진행 중인 하수슬러지 폐기물처리장이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겠지만, 이번 발의안이 시사하는 바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관광문화 도시로 널리 알려진 경주!

하지만 실상 북구와 맞닿아 있는 경계지역에 여러 가지 기피시설들이 난립해 있어 북구 주민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무책임한 태도가 아니라 경주시와 인접한 우리 북구 주민들의 피해를 외면하지 말고 인접지역 갈등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지난 2021년 지방자치단체 협력 분쟁해결 우수 사례로 선정된 충청남도의 사례를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충청남도는 15개 시·군 경계지역의 가축사육으로 인해 지자체 간 갈등이 발생했었습니다.

허가를 해준 시·군의 마을과는 멀지만 인접 경계지역의 마을과는 가까운 우리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15개 시·군이 마음을 모아 '가축사육 경계지역 조정협의회'를 구성해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 나섰으며, 각 시·군의 조례를 개정하기에 이르러 시·군 경계지역을 가축사육 제한 구역으로 지정하는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했습니다.

울산 북구와 경주시는 지금이라도 혐오기피시설의 경계지역 공공갈등 해결을 위해 이를 공론화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양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찾고, 문제 발생 시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울산 북구와 경주시는 경계가 맞닿아 있는 이웃사촌입니다. 옛말에 '가까운 이웃이 먼 친척보다 낫다.' 그리고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울산 북구와 경주시가 공존 공생할 수 있는 진일보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지자체 간 갈등 해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긴 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5분 자유발언

발언의원 : 조문경 의원

발언일시 : 제210회 임시회(2023. 2. 14.)

발언요지 : 강동 가자미의 판로 확대를 기대하며

## 강동 가자미의 판로 확대를 기대하며

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조문경 의원입니다.

우리 북구는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할 핵심사업으로 강동 관광단지 개발 등에 많은 행정력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역주민의 기대 또한 매우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덧붙여 우리구 특산물인 강동 가자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자미는 동의보감에 '맛이 달며 독이 없고 허약함을 보

충하고 기력을 세어지게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일반 생선 평균보다 20% 정도 단백질 함량이 많은 우수한 어종입니다.

그리고 강동의 어선 중 80% 이상이 가자미잡이를 하고 있으며, 울산에서 잡히는 가자미가 전국 생산량의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많이 어획되고 있습니다.

가자미의 주요 어항으로는 북구의 정자항과 동구의 방어진항이 있습니다.

'용가자미'라는 용어가 생소한 분들이 많은 텐데 용가자미는 가자미의 여러 어종 중 하나로 울산에서 참가자미로 불리는 가자미의 정식 명칭은 용가자미입니다.

이러한 지역특산물의 상품화를 위하여 동구에서는 2021년 2월 용가자미 자체 캐릭터를 개발하여 판매지원은 물론 건어물 등을 판매할 때 포장용기의 디자인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1월에는 중국 수출을 위해 울산 동구, 울산수협, 푸광 국제무역, 한중경제문화교육협회 울산지회 등 4개 기관이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저는 동구가 어민들의 수입 증대를 위해 캐릭터를 개발하고, 판로를 개척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 북구도 이와 같은 적극적인 행정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정자항을 갈 때마다 어선을 손질하고 계시는 어민들로부터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되는데, 북구 가자미의 어획물량 중 활어는 대부분 횡집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선어는 방어진 위판장, 울산수협 위판장,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어민들은 이윤 증대를 위해 직거래장터 개설을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동구보다 적은 어획량이지만 좀 더 체계적인 상품화와 홍보, 판로 개척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로컬푸드 직매장을 활용한 판매 확대입니다.

하나로마트에 개설되어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은 농·어업인의 소득을 증대하고 소비자에게는 합리적인 가격에 신선한 제품을 직접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처음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출하 농산물에 대한 소형포장필름 지원, 농산물 안전성 검사 등 구의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으로 현재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행복한 마켓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적극적인 행정으로 우리 농민들의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한 북구청 농수산과 직원 여러분을 이 자리에서 꼭 칭찬하고 싶습니다.

현재 로컬푸드 직매장은 주민 전체의 신뢰를 받으며 오전에 일찍 먼저 가야지만 살 수 있을 정도로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농산물 외 수산물은 미역, 젓갈 등 일부만 판매하고 있는데, 가자미는 활어가 아닌 반건조로도 판매가 가능하므로 로컬푸드 직매장에서도 가자미를 판매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 간 자매결연을 활용한 판로 개척입니다.

서울 서초구의 경우 '서초 직거래 큰장터 운영'으로 지역 소비자에게는 품질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고, 자매결연 지역 생산자에게는 직거래를 할 수 있는 판로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구도 자매결연 지자체인 서울 중랑구와 협의하여 가

자미를 포함, 미역 등 지역 특산품을 판매할 수 있는 판로를 개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반건조 가자미의 다양한 활용방안 모색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에 반건조 가자미 등 강동 특산물 패키지를 추가하고 강동 카페로드 조성사업과 연계한 특산물 홍보 판매장을 설치해 지역주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강동의 먹거리를 알리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북구의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변화된 지역 여건과 관광자원 분석을 통한 장기적인 전망과 관광개발 가이드라인 재정립을 위해 '관광진흥 종합계획(2024~2028)' 용역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용역에 이러한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와 마케팅 방안도 함께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강동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관광산업 발전에도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5분 자유발언

발언의원 : 임채오 의원

발언일시 : 제210회 임시회(2023. 2. 14.)

발언요지 : 중산스포츠타운 조성은 축소가 아닌 원안대로 추진해야 합니다

# 중산스포츠타운 조성은 축소가 아닌 원안대로 추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

김정희 의장님, 이선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박천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임채오 의원입니다.

우리 북구의 숙원사업인 '중산스포츠타운'을 소운동장 규모로 축소는 것이 아니라 북구 인구 22만, 도시의 품격에 맞는 종합운동장으로 조성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11월 28일에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북구청은 중산스포츠타운을 소운동장 형태의 축구장 1개, 주차장 20면으로 축소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주민설명회 현장에서는 사업 백지화보다는 그렇게라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일부 의견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대략 2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소운동장 하나 짓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동권 전 구청장이 어렵게 200억원을 확보했는데, 현 구청장도 국·시비 200억원을 추가 확보해서 당초 계획대로 8만 제곱미터 규모의 스포츠타운을 조성해야 되지 않느냐? 더군다나 중산스포츠타운 조기 완공은 선거 당시 현 구청장의 공약 사항이었는데 왜 노력도 하지 않고 소운동장으로 축소하느냐?"

이런 중요한 주민설명회 자리에 결정권자인 구청장은 왜 참석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더 이야기해 봐도 결정권자가 없는데 시간 낭비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민설명회의 본래 취지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에 반영하기 위한 것인데, 이번 주민설명회는 사업 변경에 대한 일방적인 통보나 다름없었습니다.

중산스포츠타운을 추진하면서 흙처리 문제로 한 때 난항을 겪었지만 유연한 대처로 잘 헤쳐 나왔습니다.

암반 문제도 단단한 암반이라 기초보강공사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암석 공개 매각으로 공사비를 줄이거나 암석을 활용하여 자재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40km 떨어진 곳으로의 암석 운반·처리 비용도 북구청에서 보수적으로 산출한 결과이기 때문에 유연하게 잘 대처한다면 충분히 100억원 이상의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암반으로 증액된 공사비 문제가 당장에는 장애물로 느껴지겠지만 이러한 장애물을 뛰어넘는 행정이 결국 북구를 울산 문화·체육의 중심지로 도약시키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인구 14만 명의 중소도시인 경상북도 김천시는 2000년 4월 '김천종합스포츠타운'을 건설했는데, 전국대회 개최와 전지훈련 유치 등을 통해 지역경제가 크게 활성화되었고 김천시에 대한 이미지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2019년 한해에만 372억 원을 벌었으며 다녀간 인원은 무려 37만여 명에 달합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공공 스포츠시설 확충 및 위상 강화에 대한 고찰'이라는 칼럼에 따르면 공공스포츠시설은 단순히 우리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선순환적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도시 기반시설'이라고 합니다.

우리 북구의 중산스포츠타운처럼 광범위한 부지 면적을 확보한 공공스포츠시설이 바로 도시의 발전을 이끄는 기반시설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점과 마중물로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비슷한 상황임에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인 사례도 있습니다.

울산시가 추진 중인 '울산외곽순환도로'의 경우 최근 무룡산 터널에 공사비가 2배 가까이 증가되며 공사에 난항을 겪게 되었습니다. 무룡산에 화강암이 아닌 연암과 절리가 발달해 암반이 취약하여 안전을 위한 보강비가 2배 정도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적정성 재검토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울산시는 사업비 증액의 당위성을 설명해 필요 사업비 확보에 사활을 걸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단체장의 큰 생각이 도시 발전의 초석이 됩니다.

우리 북구도 그동안 불가능을 넘어 불굴의 행정을 이어왔습니다. '북울산역 광역전철 연장'을 보십시오.

부산시도, 국토교통부도 심지어 울산시도 모두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된다고 했던 국회의원,

할 수 있다고 했던 집행부와 북구의회, 해야만 한다고 했던 주민 등 모두가 힘을 합쳐 끊임없이 설득하고, 사업비를 따낼 수 있는 곳들을 알아보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23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북울산역에 광역전철이 2025년부터 운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시비가 당초계획보다 200억 원이 넘게 증액되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북구 주민들이 북울산역에서 부산 부전역까지 광역전철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중산스포츠타운'을 통해 북구 주민들과 체육인들이 드디어 대규모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희망을 안겨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성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펄 벅은 "불가능하다고 입증되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불가능한 것도 현재 불가능한 것일 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중산스포츠타운 조성도 현재 불가능한 것일 뿐입니다. 북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체육 활성화를 위해 미래를 내다보는 구청장의 큰 생각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적극적 행정을 당부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5분 자유발언

발언의원 : 강진희 의원  
 발언일시 : 제210회 임시회(2023. 2. 24.)  
 발언요지 : 북구시설관리공단은 고객만족도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운영해 주길 바란다

# 북구시설관리공단은 고객만족도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운영해 주길 바란다

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  
 김정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보당 강진희 의원입니다.  
 북구시설관리공단은 공영주차장, 체육센터, 운동장, 캠핑장 등 우리 구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들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지방공기업으로 2019년 7월에 설립되었습니다.

북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공단소개란을 보면 '고객중심 공감경영', '주민만족 감동경영' 등이 경영방침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설립된 지 벌써 만 3년이 지난 공단의 운영 현황을 보면 여전히 미숙한 운영과 주민과의 소통 부재로 인해 현재까지도 주민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공단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는 늘 민원으로 들끓고 있는 실정입니다. 초대 이사장이 사직한 후, 민선 8기 들어서 새로운 이사장이 선임되어 공단 운영이 안정화되리라고 기대했지만,

여전히 부실 운영이라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공단과 주민과의 불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북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선임한 박천동 구청장에게도 그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민원 발생의 온상이 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이 과연 공단을 운영할 만큼의 경영실력과 마인드를 갖추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에 따르면 이사장은 '수영장에 너무나 문제가 많다. 수영강사들이 회원들하고 오래도록 유착관계가 있다. 수영장에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간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수영장 문제가 과연 수영강사들만의 문제일까요? 물론, 수영강사들도 오래 근무하다 보면 관성에 젖어 놓치고 소홀한 부분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소통하면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야지 일방적으로 몇 명을 낙인찍어서 쫓아낸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않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라면 오토밸리 체육센터 수영장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북구 전체 시설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개선점은 무엇인지 크게 넓게 바라보며 운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사장이 시설관리공단 내 다양한 직종의 직원, 강사들과 소통을 해야 합니다.

소통이라는 것이 만남의 자리만 가진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대한 존중과 경청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운영 주체들 간의 소통이 안 되다 보니 민원 대응이 늦어질 수밖에 없고 뒤늦은 공지로 주민들의 불만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강좌 개설 및 폐강 문제도 당사자인 강사와 수강생 모두와 논의한 후 심사숙고해서 진행했어야 함에도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여 불만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번 업무보고 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오토밸리복지센터 1층 로비에 음수대를 설치해달라는 민원에 대해서 센터 이용자의 의견은 묻지 않고 엉뚱하게 안내데스크 직원과 커피 임대매장의 의견을 물어 설치가 필요 없다는 결론을 내려 동료의원들이 센터 이용자들에게 다시 의견을 물어 검토할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 예를 봐도 공단의 민원 처리방식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홈페이지 '칭찬합니다'의 전체 게시글이 40건인데 비해 '고객의 소리' 주민 민원 게시글은 2023년 1, 2월에만 32건으로 확연하게 비교가 됩니다.

작년 7월 21일 제204회 임시회 현장방문활동 시 가졌던 북구시설관리공단과의 간담회에서 제기된 주요 민원을 살펴보면 일방적인 수업 폐강, 수영장 내 이물질 및 수질 저하 문제, 시설 유지보수 및 프로그램 시스템 개선, 직원 불친절 등이었는데 현재까지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동일한 민원이 반복되는 것을 보면 공단 최고관리자의 경영마인드를 되짚어 봐야 합니다.

공단을 이끌어가는 수장이라면 이윤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기업 운영하듯이 공단을 운영하면 안 됩니다.

공기업은 재무 건전성과 더불어 지방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도 동일선상에 두고 운영해야 하며, 소통과

참여는 ESG 경영의 중요한 척도입니다.

2021년 지방공공기관 혁신우수사례 중 하나인 인천시설관리공단의 시민참여 경영혁신 사례를 보면, 시민의 의견을 공단 정책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시민자문단을 구성하여 과제 발굴 후 워크숍·간담회 등을 통해 상시 공유하였으며, 코로나 상황에서도 총 119건의 대면·비대면 회의를 진행하여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북구시설관리공단도 임기응변식 민원 대응이 아니라 이용자·강사·공단 등 다양한 사람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중요한 사항이 변화될 시 최소 몇 주 전에 사전 공지하여 이용자들이 황당해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북구시설관리공단은 작년 11월 30일에 향후 시설 암행 점검과 아이디어 제안 및 전화 친절도 조사 등에 참여할 서비스평가단 12명을 위촉하였습니다. 서비스평가단 활동이 그동안의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소통과 참여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원들이 시설관리공단에 바라는 것은 큰 것이 아닙니다.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면서 주민들이 그 시설을 즐겁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북구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 북구청 문화체육과에서도 공단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5분 자유발언

발언의원 : 강진희 의원

발언일시 : 제211회 임시회(2023. 4. 20.)

발언요지 : 불법건축물이 된 '노후주택 옥상 지붕'의 양성화에 대하여

# 불법건축물이 된 '노후주택 옥상 지붕'의 양성화에 대하여

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  
김정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보당 강진희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1일 울산광역시시는 시민 생활과 기업활동에 애로로 작용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민관합동 규제발굴단'을 처음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마침 본 의원의 지역구인 양정동에도 현실과 괴리된 규제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이 있어 규제 완화를 통하여 도움을 주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주택이 밀집된 경향이 많아 작은 용지에 건축된 주택의 부족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슬라브 형태의 집을 선호했습니다.  
그로 인해 옥상은 빨래도 널고 장독대도 올려놓는 등 마당의 역할을 대신해 왔었습니다만, 세월의 흐름에 따라 평슬라브 지붕의 최대 약점인 방수층이 깨져 누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평슬라브 지붕의 방수 방법은 도막 방수, 즉 우레탄 방수가 있는데 우레탄 방수페인트는 햇빛이나 습기에 취약하여 평균 3년마다 재시공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최근 주목받는 시공 방법으로 삼각형태의 지붕이 있는데, 이 지붕은 재료 자체가 수밀하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이 방법은 증축에 해당되어 신고하지 않은 경우 모두 불법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증축이란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지붕을 덮는 것 또한 높이 증가로 보아 증축 신고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2017년 이전에 건축된 주택은 증축 신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2017년 포항 대지진 이후 건축법상 내진설계 기준이 강

화되어 노후주택은 사실상 요건 충족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한 주민은 우리 구 건축주택과로부터 옥상에 설치된 지붕이 현행법에 저촉되니 철거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까지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불법인지 몰랐던 주민은 증축 신고를 하려고 설계사무소를 찾아갔지만, 건물이 너무 오래되어 건축신고에 요구되는 서류를 준비하는 비용이 많이 드니 철거하는 게 낫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2017년 이전의 주택을 증축하려면 내진설계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내진설계 확인서를 받기 위해서는 건축 당시 요구하지 않았던 철근배근도와 내진설계, 내진 보강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방수 목적으로 천만 원짜리 지붕을 씌우기 위해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막상 지붕을 철거하려니 건물이 내려앉을까 봐 철거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의 건축물 내진성능 강화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옥상 지붕이 중량물로서 구조물에 무리를 주는 것도 아니고, 방수 목적의 시설로 본다면 증축의 범위에서 제외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평슬라브 위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설비는 설비라는 이유로 증축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문제로 고통 받고 있는 양정동 오치골 주민들은 대부분 수입이 없는 노후된 주택에 사는 어르신들로 현재 지붕을 철거할 수도, 이행강제금을 낼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노후주택에 대한 대안 없이 강화된 법으로 인하여 선량한 주민들이 위법자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불합리한 법이 먼저 개정되어야 하겠지만, 일부 지자체(강원도 양구군, 문경시, 철원군, 청주시)에서는 건축

조례를 우선 개정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의 경우 지붕 또는 옥상에 방수를 목적으로 외벽 없이 설치한 비가림막 구조물로서 구조 안전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에 포함되도록 담당 공무원이 직접 규제 완화를 제안하여 조례를 개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청주시는 가설건축물의 확대를 통해 영리 목적이 아닌 생활 불편 해소 차원의 경미한 불법건축물을 양성화하여 옥상 지붕 증축에 대한 주민의 시간 및 금전적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우선 노후주택의 옥상 지붕이 증축 신고 대상이 되지 않게 안전한 지붕 설치를 위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개정을 적극 건의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에도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누수 방지 목적으로 기설치 된 지붕 양성화 방안과 이행강제금 감경 방안도 함께 검토 요청 드립니다.

건축법과 조례가 개정되면 불법인지 모르고 설치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줄 수 있고 아울러 옥상 지붕 설치에 대한 안전 기준이 마련되어 강풍 등으로 옥상 지붕이 날아가 주위에 피해를 주는 사례도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우리 구에 접수된 고발 민원에 대하여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대처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길거리를 지나다 보면 노후주택에 설치된 옥상 지붕이 세집 걸러 한 집씩 눈에 띄니다.

이 많은 주민을 위법자로 방치하시겠습니까?

현실과 괴리된 건축법의 개정과 대책이 시급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5분 자유발언

발언의원 : 손옥선 의원

발언일시 : 제211회 임시회(2023. 4. 20.)

발언요지 : 일상 속에 파고든 마약! 대비 철저히 해야

## 일상 속에 파고든 마약! 대비 철저히 해야

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

김정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동·효문·양정·염포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손옥선 의원입니다.

최근 대치동 학원가의 마약 음료 사건과 유명 남자 배우의 마약류 투약 사건 등 먼 나라 이야기인 줄로만 알았던 마약 관련 소식이 심심찮게 들려오며 우리 사회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3월 사이에 검거된

울산 지역 마약사범은 총 42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8명)보다 10.5%나 늘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마약류 검거 인원은 총 220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는데,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또 이 기록을 경신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큰 문제는 최근 10대를 중심으로 마약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국 기준 10대 마약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2022년 481명으로 4배나 증가했습니다.

여학생들에게 살 빠지는 약으로 알려진 '식욕억제제'와 수험생들에게 공부 잘하는 약으로 알려진 '주의력결핍치

료제'가 불법으로 유통된 후 오남용되어 사고를 일으키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2020년 이후 마약사범의 주된 연령층이 30~40대에서 20대 이하로 젊어지면서 고등학생 마약 판매채까지 등장했습니다.

마약은 술이나 담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독성이 강해 한 번 손을 대면 끊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필로폰 사용 1회당 분비되는 쾌락 호르몬인 도파민의 양은 평소의 수천 배에 이르며, 이는 평생 나오는 도파민의 총량보다 많은 수치이기 때문에 단 1회 사용만으로도 중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마약이 치명적인 이유는 뇌 발달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라 아주 짧은 시간에도 뇌 구조를 변형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미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펜타닐'은 필로폰의 100배 정도 독해서 중독된 청소년들이 목숨을 잃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약은 한 사람만의 중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약을 사기 위해 원조교제, 조건 만남 등 성범죄에 빠지기도 하며, 마약에 취한 채 일으킨 이상행동이 선량한 시민을 사망에 이르게도 합니다.

시민들의 일상까지 파고든 마약은 이제 특수계층뿐만 아니라 주부에서 청소년들까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지만, 우리 사회의 대응은 여전히 미비해 보입니다.

최근 울산시교육청은 마약류 등 유해 약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고자 '청소년 유해 약물 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성 현황을 보면 교육지원청, 울산광역시청, 울산경찰청, 울산광역시약사회, 울산 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울산 중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으로 우리 북구 관련 기관은 없습니다.

또한, 지난달 발표된 '제8기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도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마약이나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대책 등은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강력한 단속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처벌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보입니다.

마약은 재범률이 높은 범죄로 반복의 죄사슬을 끊기 위해

서는 예방과 치료를 강화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북구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중독환자는 질병으로서의 마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들은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마약에 노출되고 중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센터를 중심으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치료와 재활·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전문교육인력을 양성하는 등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중장기대책을 마련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2015년 마약예방 국제표준보고서에 따르면 마약류 오남용 예방에 사용한 1달러는 향후 보건, 사회적 범죄 비용에 있어서 10달러를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을 위협하고 있는 마약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인력을 총원하는 등 마약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1,600만 영화 '극한직업'에는 우리에게 친숙한 치킨을 이용해 마약을 배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부터 대비하지 않으면 영화 속 상황이 현실이 될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5분 자유발언

발언의원 : 이선경 의원

발언일시 : 제211회 임시회(2023. 4. 20.)

발언요지 :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활성화 방안 고민해야

#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활성화 방안 고민해야

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  
김정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북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천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  
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소2·3동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이선경 의원입니다.

여러분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고향이나 응원하고 싶은 지자체에 기부를 하면 세제 혜택  
과 함께 답례품을 받는 제도입니다.  
즉, 10만 원을 기부하면 전액 세액 공제가 되고 기부액의  
30% 한도 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어 사실상 13만  
원가량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인구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의 재정을 확충하고, 이를 활용하  
여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등 주민 복리 증진사업 등에 사  
용하기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고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지 4개월째에 접어들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북구는  
참여가 저조한 상황입니다.

최근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100일을 맞아 전국 기초지자  
체의 기부 현황 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 가까운 경주시  
는 두 달 만에 1억 원이 넘는 기부금을, 가장 많은 기부금  
을 모은 전북 임실은 3개월 간 3억 원의 모금 실적을 보  
인 반면 우리구는 4월 14일 기준으로 천만 원도 채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시행이 우리 구의 부족한 재정을 보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활성화 방안에 대해 우리 구  
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획기적이고 참신한 답례품을 개발해야 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전 전문가들은 첫째 첫 답례품이 고

향사랑기부제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 했습니다.

이를 반증하듯, 3억 원을 모금하며 1위 실적을 기록한 전  
라북도 임실은 대표 브랜드인 '임실치즈'를 내세워 제도  
시행 전부터 유제품과 치즈 등으로 구성된 3만 원짜리 치  
즈선물세트를 새로 제작했습니다.  
지역의 특산품과 소비자 기대치의 균형을 잘 찾은 '임실  
치즈' 세트는 전국 농축수산물 답례품 중 2위를 차지하며  
기대 이상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두 달 만에 1억 원을 모금한 경주시는 어떨까요?  
경주시는 '경주페이'를 답례품으로 내세워 지방재정 확충  
은 물론 경주 관광을 통한 지역 상권 살리기에도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울산 동구의 경우 대왕암공원캠핑장 카라반 이용권을 답  
례품으로 내세워 울산시와 타 구·군에 비해 특출한 실적  
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북구는 어떨까요?  
북구의 답례품은 참기름, 한우, 쌀, 미역으로 선택의 폭이  
좁고 타 지역 답례품과 차별화되어 있지도 못합니다.  
농축수산물은 임실 치즈, 영주 사과, 제주 한라봉 등 누구  
나 알만한 지역대표 상품이 아닌 이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4월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100일 긴급진단 토론회'에서는 '체험형 답례품' 발  
굴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경기 부천의 '프로축구  
시축', 전남 영암의 '천하장사와 함께하는 식사데이트권'  
등의 체험형 답례품이 지역의 2·3차 소비를 창출함으로  
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우리 북구도 대표 농축수산물과 더불어 관광지  
방문이나 체험, 숙박이 가능한 소비창출형 답례품을 개발  
해야 합니다.

두 번째, 고향사랑기부제의 빠른 정착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가 절실합니다.

최근 고향사랑기부금 1억 원을 달성한 완도군은 '고향사랑e음' 포털을 통해 100번째, 200번째 등 특별 순번 기부자에게 완도사랑상품권을 경품으로 주고 설문조사 참여자에게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지급하는 '삼삼한 이벤트'를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지자체들은 기업가와 유명 연예인 등을 앞세워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고 있으며, 우호교류도시와의 상호 기부를 통해서도 모금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대표 관광지인 울산공항 등에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고 5월에 열리는 쇠부리축제에서도 타 지역주민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이벤트를 펼치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향사랑기부금의 사용처와 운영에 대한 선제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일본 사례를 보면, 시행 초기에는 기부금이 참신한 답례품에 몰렸으나, 점차 사용처에 따라 모금액이 차이 났습니다.

우리 구도 지역문제와 연계된 차별화되고 투명한 기부금 사용처를 발굴하여 기부자들이 믿고 기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시작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북구청은 타 지자체를 '타산지식' 삼아 좀 더 발전적으로 고향사랑기부제를 운영하여 더 살기 좋은 북구, 더 살고 싶은 명품 북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5분 자유발언

발언의원 : 김상태 의원

발언일시 : 제211회 임시회(2023. 4. 20.)

발언요지 : 황어 떼의 출현, 동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시급하다

# 황어 떼의 출현, 동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시급하다

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  
김정희 의장님, 이선경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태 의원입니다.

최근 울산MBC와 전국 아침뉴스에서 봄을 알리는 황어 떼가 동천을 따라 거슬러 오르는 모습이 송출되었습니다. 동천 황어 떼의 기적을 방송국에 제보한 이정호 전 울산 교육과학연구원 원장님의 말씀에 따르면, 지난 4월 6일 상안교에서 동천 서편으로 걸어 내려오는데 평소와는 달리 사람들의 시선이 보 아래 한곳에 쏠려 있어 확인해 보니 수만 마리의 황어들이 무리 지어 산란과 수정을 하는 놀라운 장면들이 연출되었다고 합니다.

3년 전인 2020년에도 황어 떼가 목격된 바 있는데, 다시

황어 떼가 출현한 것은 동천의 기적이라며 북구 주민으로서 동천이 어류 생태하천으로 복원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하셨습니다.

동천은 경주시 토함산에서 발원하여 북구와 중구를 지나 태화강으로 합류되는 도심하천으로 바닥이 대부분 모래와 자갈로 구성되어 있어 물이 땅속으로 침투하기 때문에 평소 유지유량이 부족하여 울산광역시에서는 2010년 '울산 4대강 마스터플랜'의 일환으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총 2,346억원의 사업비로 약 14km의 구간에 10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도시화와 개발로 인한 건천화와 수질오염 개선을 위해 하도 정비, 농소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사업, 농소지선관로 부설사업, 역사 문화 탐방로와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조성 등이 완료되었으나, 아직은 동천을

생태하천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동천을 따라 봄에는 황어, 여름에는 은어, 가을에는 연어가 찾아올 수 있도록 어도 설치, 수량 확보, 하천 복원, 생태계 보전, 친수 공간 조성 등 생태하천 조성을 위한 복원 사업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동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을 위해 3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동천을 생태하천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강력한 의지와 범시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합니다.

1996년 태화강은 '죽음의 강'으로 알려져 있었으며, 수질은 공업용수로도 사용 불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2004년 '에코폴리스 울산선언'이 있은 후 태화강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었고, 오염물질 차단과 하수처리장 건설, 하수관거 정비사업, 하천 유지수 사업, 수변에서 서식하는 희귀·멸종 위기 동식물들의 보호와 복원 노력 등으로 2007년 이후 태화강의 수질은 1등급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이후 연어와 은어떼가 돌아와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으며, 2013년에는 전국 12대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결과는 모두 울산광역시의 강력한 의지와 시민들의 공감과 참여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지금도 태화강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3년마다 조사하는 전국 '하천 수생태계 건강조사'에서 '매우 좋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태화강뿐만 아니라 태화강의 지류인 동천도 생태하천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구가 나서서 울산광역시에 우리의 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구 주민자치회 등 주민들과 함께 먼저 공감대를 형성해야 합니다.

둘째, 동천의 부족한 수량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동천이 하천 준설작업으로 강바닥이 낮아지고, 상안동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내보내는 수량 덕분에 상시로 물이 흐르고는 있지만, 황어나 은어, 연어가 동천 물길을 따라 살아서 올라오기 위해서는 유지용수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흘러나오는 물의 온도가 높아 동천 생태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으니 동천의 수량과 수온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대책이 필요하며, 사업 추진 시에는 치수 개념에 맞춘 단

순한 정비가 아닌 생태복원에도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셋째, 동천도 환경부 공모사업을 통해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바다에서 돌아와 하천을 거슬러 오르는 수중 어류들이 동천에서 산란과 수정을 할 수 있도록 어도 설치를 비롯한 생물다양성 위기에 초점을 맞춘 수생태계가 어우러지는 복원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남구 여천천의 경우 환경부 '2022년 지역 맞춤형 통합하천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2,760억 원으로 여천천을 친환경 하천으로 조성하고 새로운 관광명소를 육성할 계획이라 합니다. 우리 구도 울산광역시에 적극 건의하여 공모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지난 4월 6일 있었던 반가운 황어 떼 출현 소식이 올해에만 그치지 않길 바라며, 동천이 주민들의 정서적 힐링 공간으로 활용되고 자연생태하천으로서 복구를 대표하는 명품하천으로 변모되길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5분 자유발언

발언의원 : 강진희 의원

발언일시 : 제211회 임시회(2023. 5. 4.)

발언요지 : 공무원 노조에 대한 복구청의 징계처분을 강력히 규탄한다

# 공무원 노조에 대한 복구청의 징계처분을 강력히 규탄한다

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  
김정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보당 강진희 의원입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 노조)은 지난해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윤석열 정부 정책 평가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태원 참사 책임자 행정안전부장관 파면 처벌(하위직 책임 전가 중단), 2023년 공무원 보수인상을 1.7%, 공무원 인력 5% 감축 5개년 계획, 65세 공무원연금 지급(연금소득공백) 정책 유지, 노동시간 확대·최저임금 차등 정책, 돌봄·요양·의료·교육 등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정책, 법인세 인하 등 부자감세 복지예산 축소 정책' 총 7가지에 대해 현장에서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당사자인 공무원의 찬반 의견을 묻는 투표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노조는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총투표의 내용 중 일부가 공무원 근무조건과 무관한 내용이라며 총투표 참여 금지 공문을 일선 지자체에 내려보내는 등 투표 방해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노조는 모든 건안이 공무원의 노동조건과 관련이 있으며, 정부 정책에 대한 조합원들의 의사를 묻는 것은 노동조합의 당연한 권리임을 알리며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정부의 공권력을 동원한 온갖 탄압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38,543명의 조합원이 투표에 참여하였습니다. 투표 결과, 이태원 참사 관련 이상민 행안부장관을 파면·처벌해야 한다는데 83.4% 조합원이 찬성했고, 2023년 공무원 보수인상을 1.7%에 86.2%, 공무원 인력 감축 계획에 92.6%, 공무원연금 소득공백에 89.7%, 정부의 노동시간 확대 최저임금 차등 정책에 89.4%, 부자감세 복지예산 축소 정책에는 89%가 각각 반대한 것으로 나

타났습니다. 정부는 노조만 때리는 것이 아니라, 정부정책을 직접 집행하는 당사자인 공무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을 때, 세계 경제 강국 미국에서 사체를 처리하지 못해 길거리에 나뒹굴고 있을 때 우리나라가 잘 대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본 의원은 무엇보다 의료 민영화를 반대하고 공공의료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 온 보건의료 노동조합과 민주노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8·9급 공무원의 처지를 알리고 국민의 공감을 불러일으켜 개선해 나가고 있는 것도 공무원 노조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공무원 노조의 투표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투표가 끝난 후에 전국 각 시도에 관련 증거를 조사해 징계처분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공무원 노조의 총투표를 집단행동으로 간주하여 징계 운운했으나, 공무원 노조 활동은 위법성이 전혀 없습니다. 총투표는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유지·향상하기 위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이며, 방식 또한 사용자에게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총의를 모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적극적인 위력으로 이를 방해한 것은 명백한 업무방해에 해당합니다.

공무원을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영혼 없는 정권의 시녀로 만들려고 하는 정부의 구시대적인 발상에 대해 우리 복구청이 부화뇌동하는 행태가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박천동 구청장님! 우리구는 누구보다 현대자동차 지부를 비롯해 북구 사업장 노조와 좋은 관계를 맺고 민원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복구청 공무원 노조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징계를 내리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국에서 총투표 관련 징계를 추진한 곳은 울산 북구가 유일합니다. 무슨 영광을 누리시겠다고 굳이 앞장서지 않

아도 될 것에 우리 북구청이 앞장서는 겁니까?  
 북구청은 총투표 현장 채증 결과를 바탕으로 공무원 노조  
 울산본부와 울산 북구지부 간부 8명에 대한 조사와 징계  
 를 추진하여 지난 4월 24일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북구청의 징계 사유는「지방공무원법」 제49조 ‘복종의 의  
 무’ 위반이라고 합니다. 북구청 노동조합은 북구청에 소  
 속된 부서 중 하나가 아닙니다.  
 언제부터 우리 북구청이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의견을 묻

는 행위에 직무상 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그 법적인 근거  
 는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 노조의 정당한 활동에 대한 북구청의 징계처분을  
 강력히 규탄하며,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에 대한 업무방  
 해와 직권남용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5분 자유발언

발언의원 : 조문경 의원  
 발언일시 : 제211회 임시회(2023. 5. 4.)  
 발언요지 : 주민과 함께 원전교부세 확보합시다

## 주민과 함께 원전교부세 확보합시다

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  
 김정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조문경 의원입니다.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26일까지, 국민동의청원으로 진  
 행되었던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관한 청원’이 최소동  
 의인원인 5만 명의 동의를 받지 못해 동의만료폐기된 일  
 이 있었습니다.

이번 청원과 관련하여 저는 누구를 탓하고 나무라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우리구 의원이자 ‘원자력’  
 관련 업무를 소관으로 하는 복지건설위원회의 위원장으  
 로서 제 자신을 반성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저는 제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주  
 민들 앞에 나서기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어 고민도 많이  
 했지만,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지나간 과오를 반성하고  
 앞으로의 미래를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용기를 내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978년 우리나라에서 고리 1호기가 가동을 시작한  
 이후 어느덧 4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최근 들어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신재생 에너지  
 가 뜨고 있던 하지만, 원자력 발전은 여전히 우리나라 에  
 너지 생산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은 비용 대비 에너지 효율이 좋아 국가 에너지 수  
 급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1986년 소련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보면 그 피해  
 규모와 강도는 매우 심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원전 사고의 위험에 대비하고자  
 2014년에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  
 법」을 개정하여 원전 반경 30km까지를 ‘방사선 비상계  
 획구역’으로 지정·확대하였습니다.

울산은 월성·고리·새울원전과 인접해 있어 ‘방사선 비상  
 계획구역’ 안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에 포함되는 지자체는 방사능 사고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사고 예방 훈련 및 주민 교육 등을 의무적으로 실시  
 해야 하며, 각종 방재 물품 구입과 인력도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원전의 위험성을 인정하면서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는 23개 지자체에 제대로 된 예산 지원 없이 의무와 책임만 지우고 있습니다.

이에 원전 인근 지역 23개 지자체가 원자력안전교부세의 입법화와 원전 안전 관련 공론화를 위하여 2019년에 전국원전동맹을 출범하기에 이르렀고, 원자력안전교부세의 입법화를 위해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청원에 대한 국민동의를 진행한 결과 32,112명의 동의로 최소동의인원인 5만 명에 못 미치는 64%의 동의로 그쳐 청원은 동의만료폐기되고 말았습니다. 전국원전동맹에 가입된 23개 지자체의 인구인 503만 명의 1%에 불과한 5만 명의 동의도 받지 못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2021년 7월 (주)신세계 부지 오피스텔 건립 반대 서명 운동에는 56,625명이 참여했고, 2020년 월성 원전 맥스터 증설 찬반 북구 주민 투표에도 무려 50,47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은 이 안전들보다 결코 그 중요성이 떨어지지 않음에도 국민동의청원에 실패한 것은 주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공론화나 공감대 형성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준비는 집행기관만의 책임이 아니라 같이 준비하고 대비하지 못한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조문경 의원, 감히 건의드려 봅니다.

앞으로는 북구 발전과 주민을 위한 일들에서는 최소한 의회와 주민들이 함께 공감하고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소통의 장을 먼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 단계에서부터 예산 편성까지 전국 원전 동맹에서 일어나는 사항들을 주민들과 함께 의논하고, 함께 논쟁하고, 함께 풀어가주시길 북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의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국민동의청원을 교훈 삼아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100만 주민 서명운동’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기관, 주민이 함께 노력합시다.

이제부터는 사진찍기 등 보여주기가 아니라 새로운 그림을 함께 그려가는 북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의 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5분 자유발언

발언의원 : 박재완 의원  
발언일시 : 제211회 임시회(2023. 5. 4.)  
발언요지 : 지방자치! 견제와 균형의 원칙 세우자

## 지방자치! 견제와 균형의 원칙 세우자

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  
김정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박천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소1동, 송정동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박재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견제와 균형이라는 지방자치제도의 기본원칙이 무너진 행정이 우리 주민들에게 얼마나 큰 피해로 돌아오지는 지를 짚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우리 북구가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좋은 의미로 유명해졌으면 참 좋았을 텐데, 보는 내내 낮

부끄럽게 만드는 기사로 유명해졌습니다.  
제목도 신랄합니다. “짓는데 5억 뜯는데 1.8억…세금 평  
평 울산 ‘항당 체육관’ 정체” 네, 아마 아실 분들은 다 짐작  
하고 계실 겁니다.

바로 ‘매곡배드민턴장’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정보공개  
요청으로 받아본 자료와 2015년부터의 언론보도 자료에  
따르면 현(現) 매곡배드민턴장은 공유수면인 하천구역으  
로 영구시설물인 체육시설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2014년 당시 집행부는 임시사무  
실 사용을 위한 가설건축물로 신고했으며, 신고와는 달리  
체육시설로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약 8년간 배드민턴  
동호회에 사용료를 받는 등 불법 운영을 해왔습니다.

이 불법건축물 건립에만 5억 원, 바닥 등 각종 수리에 1  
억 원, 그리고 반성도 없이 과거의 잘못을 지우기 위한 철  
거비에 또 1억 8천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이 정도 예산이면, 버스 표지판만 있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구민들에게 무려 49개 정도의 버스정  
류장을 설치해 드리고도 남는 돈입니다.

당시 배드민턴동호회 회원들은 현재의 부지에서 네트만  
설치하여 이용하다 비가 오니 천막을 치고 사용했습니다.  
입소문이 나면서 동호인들이 몰리기 시작한 와중, 폭설에  
의해 배드민턴장이 훼손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때가 2014년 2월,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불과 4개월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을 단속해야 할 지방자  
치단체에서 무슨 이유에서인지 불법을 자행하는 일이 발  
생한 것입니다.

지방자치제도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역 내에  
서 일 잘하고 능력 있는 분을 주민들이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함으로써 지역 내 사무를 자주적으로 결정하고 처리  
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반면 오로지 자기 정치 즉 선심성 행정에 몰두한 단체장  
이 당선되면 주민 혈세를 낭비하고 지방재정을 고갈시키  
기도 합니다.

특히 단체장과 같은 당이 기초의회 원 구성의 다수당이  
되어 견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거나, 야합을 한 자  
가 결탁한다면 그 피해는 더욱 가중되기도 합니다.

구민들의 선택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임기가 비록 4

년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동안 인사와 예산 등에서 막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번 사안은 일선 공무원이 법을 어기면서  
까지 자체적으로 추진한 것이 아니라 인사권을 가지고 있  
는 단체장의 무리한 압력과 결탁을 그 원인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던 2014년 4월, 의회는 당시 제1  
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 매곡 배드민턴장 건립에 부지  
문제는 없는지, 건축법에는 문제가 없는지, 재차 물었지  
만 들려온 것은 ‘네’, ‘아니오’도 아닌 ‘실무적으로 협의해  
서 최종 허가가 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란 애매  
모호한 대답으로 의원들의 눈과 귀를 가렸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예산을 승인한 북구의회도 책임  
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북구의회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다시 의회의  
본분으로 돌아가서, 이번 사태를 냉정하게 봅시다. 과연  
이러한 불법적인 행태를 원인과 대책을 묻지 않고 ‘누가  
알까 무서워서’ 최대한 빨리 덮어 버리려고 하는 것을 구  
민들이 안다면 과연 우리 의회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의회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일까요?  
매곡배드민턴장은 불법으로 건립하여 8년간 운영하였고  
이번 추경예산에 철거비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들의 혈세가 무려 6억 원 이상이 투입되어 불법시설  
건축과 운영에 사용되었고, 이제 또 1억 8천만 원을 철거  
에 사용하려 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불법을 자행하고 구  
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대표적 사례이며 선심성 행정의  
폐해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견제와 균형의  
지방자치 원칙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된 철거비 예산을 삭감하고 사실관계 조사  
와 대책 수립을 위한 북구의회 차원의 행정사무조사는 물  
론 철거 비용 발생 시 관련 단체장에 대해 구상금 청구를  
검토해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감사원에 공익감사까지 청  
구해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 다시는 선심성 불법행정이 만연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 틀을 세우는데 저와 여러 동료의원들이 함께 힘  
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5분 자유발언

발언의원 : 박정환 의원

발언일시 : 제211회 임시회(2023. 6. 12.)

발언요지 : 첨단산업단지로 발전하는 북구와 농민의 동반협력성장을 바라며

# 첨단산업단지로 발전하는 북구와 농민의 동반협력성장을 바라며

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 힘! 박정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북구의 농업산업 실태를 알리고 산업과  
농민의 동반협력성장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이 자  
리에 섰습니다.

최근 농업산업은 다양한 발전을 하고 있으며, 특히, ‘스마  
트팜’이라는 이름으로 4차산업혁명 기술인 인공지능, 사  
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다양한 기술들이 접목되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원격, 자동으로 농작물을 재배하는 과  
학 기반의 농업방식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공장에서 수경으로 재배되는 상추, 수직으로 조성  
된 컨베이어 벨트에서 물과 햇빛을 공급받는 딸기 등 최  
근 스마트팜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에 따르면, 세계 스마트팜 시장은  
연평균 10%, 우리나라는 연평균 15%가 넘는 높은 성장  
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스마트팜 시장이 각광받는 이유는 아이러니하게  
도 인류가 앞으로 식량 부족에 시달릴지도 모른다는 문제  
에 직면해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시국이던 2021년, 전 세계 농수산물시장 가격이  
31% 인상되고 시장 생산량이 10% 축소된 사례가 보고  
된 바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농사를 지을 땅이 점점 부족해지고 고령화로  
인해 농업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기후와 토  
지의 상태에 상관없이 적은 노동력으로 농산물의 품질과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스마트팜’이 대안으로 떠오  
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핫한 ‘스마트팜’ 산업에 대해 우리 북구는 미지  
근한 대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3월,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한 ‘스마트팜 운영현황’  
전수조사에서 우리 북구는 스마트팜 농가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농가가 스마트 설비를 갖추기는 했지만 ‘스마트팜’  
으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인 ‘통합제어시스템’, ‘양액제어  
시스템’, ‘자동개폐장치’, ‘환경제어시스템’이 4가지를 다  
갖춘 농가가 한 곳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농수산물과에서는 ‘2040 중장기 발전 실행계획’을 통해  
2022년부터 106ha, 농가 109곳에 대해 시설원예분야  
ICT 융복합 시설장비와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스마트  
팜 ICT 융복합 확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실제로 이 사업의 혜택을 받은 농가는  
단 3곳에 불과합니다.

우리 북구는 도농복합도시로 도시와 농촌이 적절한 조화  
를 이루고 있습니다.

도심 가까이에 농가가 인접해 있어 농가의 신선한 농작물  
을 가까이에서 소비할 수 있는 장점으로 로컬푸드를 정착  
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통해 스마트팜을 확  
산시킨다면 스마트팜 선도도시로써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 그 규모와 작물 종류, 하드웨어 장비 등에 따라 다  
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까지  
드는 초기 투자 비용을 감안해 지자체에서 임대형, 보급  
형 스마트팜을 구축해 청년 및 은퇴자 등이 창업할 수 있  
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둘째, 스마트팜은 첨단 기술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에 대

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농민들의 스마트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스마트팜 기술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교육과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셋째, 우리나라 스마트팜 품목은 딸기, 참외, 토마토, 파프리카에 80% 이상 집중되어 있고 우리 구도 딸기와 부추가 주력 품목입니다.  
농산물은 생산 즉시 소비하지 않으면 폐기해야 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과잉생산이 되지 않도록 스마트팜 도입 초기부터 생산품목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도입 후 생산되는 품목에 대한 판로개척도 미리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제도적 지원입니다. 현행 스마트팜은 건축법 적용 대상으로 농업시설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킬 수 있도록 정부에 관련 법령 정비를 지속적으로 건의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미래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조성, 농업분야 온실가스 저감, 신시장 창출 등 농업 현안을 해결할 열쇠로 '스마트팜'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가 자연과 도시가 어우러진 도농복합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5분 자유발언

발언의원 : 임채오 의원  
발언일시 : 제211회 임시회(2023. 6. 12.)  
발언요지 : 북구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에 적극 나서라

# 북구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에 적극 나서라

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  
김정희 의장님, 이선경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임채오 의원입니다.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에 대해 국민적 우려가 큼니다.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지방정부의 존립 목적이며 구정의 최우선 목표이므로 북구가 앞장서서 막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22만 북구 주민을 대표하여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를 속히 멈추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1년에 폭발한 후쿠시마 원자로 내부에는 아직도 어마어마한 열이 방출되고 있다 합니다.

12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음에도 당시 폭발 사고로 인한 방사능물질이 지하수 및 냉각수에 지속 유입되었고 고농도의 방사능 오염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매일 140톤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4일 중국 시진핑 주석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해양 방류 처분하기로 공식 결정하였습니다.

일본의 결정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는 강경한 반대입장을 표명했고 일본 후쿠시마현 주민 70%도 반대했습니다.

중국은 세계보건총회에서 오염수 배출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왜 그들이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오염수를 농업이나 공업용수로 활용하거나 일본 국내 호수에 배출하지 않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태평양도서국포럼도 오염수 배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배출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

입니다.

그러나 최근 한일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은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뒤로 하고 마치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여 안타깝습니다.

오염수 해양 방출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먹거리와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우리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접근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지난 달 31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전문가 현장시찰단'은 주요 설비들이 설계대로 설치되었는지와 이상 상황 시에 오염수 방출을 차단하기 위한 수단들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찰단 단장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현장 직접 확인과 보다 구체적인 자료 확보를 통해 과학·기술적 검토 과정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론은 다릅니다. 시찰단의 방식은 일본의 입장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비판받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방사능 오염물질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얘기합니다.

태평양도서국포럼 자문단의 분석에 따르면 도쿄전력의 오염수 데이터는 불완전하고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ALPS를 통해 정화된 오염수의 70%가량은 여전히 치명적인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 이상 들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일본 국회에서도 IAEA 보고서의 오염수 시료 채취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일본의 입장과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원전안전 전문가들은 시료의 균질성과 대표성 확보를 위해 교반 작업이 필요하며, 현재의 채취 방식은 신뢰성과 대표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갔고 도쿄전력은 오염수 방류 마지막 단계인 터널에 바닷물을 채우는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하루 만에 해저터널에 6천 톤 가까운 해수를 채운 것입니다. 당장 7월부터 일본이 방사성 오염수를 바닷물에 섞어 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현재 탱크에 저장된 후쿠시마 오염수는 133만톤인데 앞으로 최소 28년 동안 이 방사성 오염수가 끊임없이 후쿠시마 앞바다로 흘러 나가게 됩니다.

최근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가정이나 업소에서는 소금 사

재기가 많아졌고 이미 횡집과 같은 자영업은 손님이 급감해서 문을 닫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 투기로 인해 생계에 큰 타격을 입을 수산업체와 어민들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울화통이 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가 못한다면 푸른 바다를 품고 있는 우리 복구가 먼저 시민사회와 힘을 합쳐 대안을 모색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만이라도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후손들과 지구의 환경 보전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할 때입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임박했습니다. 함께 막아야 합니다. 같이 걸어줄 누군가가 있다는 것! 그것처럼 내 삶에 절실한 것은 없습니다.

복구 주민의 생명과 안녕에 함께 걸어줄 누군가가 바로 복구청과 복구의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5분 자유발언

발언의원 : 이선경 의원  
발언일시 : 제211회 임시회(2023. 6. 12.)  
발언요지 : '꿈수'로 지어진 매곡배드민턴장의 비애

## ‘꿈수’로 지어진 매곡배드민턴장의 비애

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  
김정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박천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 농소2·3동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이선경 의원입니다.

울산 북구가 2014년 불법인 것을 알고도 주민 혈세 5억 원을 투입하여 국토부 소유의 공유수면 부지에 ‘꿈수’를 부려 황당한 체육관을 지었다는 웃지 못할 일이 전국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2014년의 황당한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 합니다.  
2014년 2월, 천막을 둘러쳐 사용하던 배드민턴장이 폭설에 무너져 내려 사용할 수 없게 되자 배드민턴클럽 회원들의 민원이 이어졌습니다.  
하필 그 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었기에 그 당시 단체장은 주민 민원을 ‘나 몰라라’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에 북구는 어찌된 영문인지 정말 발 빠르게 한 달여 만에 울산시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해서 3월 말 매곡배드민턴장 건립비용 5억 원을 확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합니다.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 높이가 낮아 배드민턴을 칠 수 없는 매곡동 377번지 교량 밑을 부지로 신청한 것입니다.  
결국 현재 매곡배드민턴장이 위치한 매곡동 795-173으로 위치를 변경해서 2014년 4월,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합니다.

원래 계획했던 부지에 배드민턴장을 건립하려면 절토 등에 공사비가 더 들어가고, 배드민턴회원들이 원래 사용했던 부지를 원하고 있어서 부지 위치를 변경했다는 것입니다.  
세금이 5억 원이나 들어가는 공사를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진행한 것입니다. 이 이상한 공사는 여기서 더 나아가 불법을 자행하기에 이릅니다.

현 매곡배드민턴장이 들어선 곳은 하천 바로 옆 ‘국토교통부’ 소유의 국유지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일반건축물 건립이 엄격히 제한된 곳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임시사무실’의 용도로 공유수면 점용 허가가 떨어집니다.  
그것도 처음에 ‘운동시설’ 용도로 건축 협의를 요청했으나, 공문회신이 없어 ‘임시사무실’로 용도변경을 신청한 후에야 허가가 난 것입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산 확보부터 준공까지 8개월!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건립된 이곳은 임시사무실로 허가가 났지만 체육관으로 슬며시 용도를 바꾸고 ‘매곡배드민턴장’이라는 이름으로 무려 8년 동안이나 불법으로 운영되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울산 북구의 ‘꿈수’는 다음 해인 2015년 울산시 종합감사에서 그 실상이 드러났으며 이와 관련해 공무원 5명만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몇 명의 공무원들이 스스로 불법을 자행했을까요?  
이들의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이렇게 무모한 짓을 공무원들이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누가? 왜? 지시했는지 그 책임을 묻고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불법이 적발된 시 감사 이후에도 그 누구도 이것을 바로잡고 책임지고자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016년 8월 7일, 가설건축물 즉 임시사무실의 존치 기간이 만료되었지만 북구청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없었으며, 2016년 태풍 ‘차바’로 인해 벽체와 마루바닥 등이 파손되는 일이 생기자 불법건축물임을 알고도 2017년 2월, 6대 청장님의 방침으로 그해 4월부터 6월까지 주민의 혈세를 들여 보수공사를 시행합니다.  
덧붙여 말하자면 불법으로 건축된 건축물에는 주민의 세금이 투입될 수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공유수면에 지어져 태풍과 하천 범람 등 각종 재난 발생의 위험이 있는 데다 불법건축물로 소방관

련 법령 등의 법적제재를 전혀 받지 않고 운영돼 언제든 사고가 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였지만 그 누구도 주민의 안전을 걱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안전사고가 나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하늘에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후, 복구청은 매곡배드민턴장이 지난해 태풍 ‘힌남노’로 다시 한번 피해를 입고 여러 언론을 통해 복구청의 불법 자행이 전국에 알려지자 결국 다시 주민의 혈세1억 8천만원을 들여 배드민턴장을 철거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네!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으로 지어진 매곡배드민턴장은 반드시! 철거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공유수면에 배드민턴장을 짓는 불법을 자행하고 또 불법임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들여 수리하고 위탁계약을 맺어 위탁금까지 받은 이 어처구

니없는 행정의 연속과 언제든 사고가 나도 이상하지 않을 재난과 안전의 사각지대에 주민을 방치한 일, 그리고 짓는데 5억 원, 수리에 1억 원, 철거에 1억 8천만 원 등 총 7억 8천만 원의 주민 혈세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그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문장을 마지막으로 5분 자유발언을 끝맺고자 합니다. 리더의 최고 덕목은 ‘결정’과 ‘책임’이라고 합니다.

‘매곡배드민턴장’은 누구의 결정이었으며 누구의 책임하에 있었던 것입니까?

최고결정권자인 단체장의 선거를 앞두고 행해지는 선심성 행정으로 주민의 피 같은 혈세가 낭비되는 이 같은 현실에 당사자들은 책임을 지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5분 자유발언

발언의원 : 강진희 의원

발언일시 : 제211회 임시회(2023. 6. 12.)

발언요지 : 윤석열 정권은 무자비한 건설노조 탄압을 멈춰야 합니다

# 윤석열 정권은 무자비한 건설노조 탄압을 멈춰야 합니다

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  
김정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보당 강진희 의원입니다.

저는 건설노조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공갈협박범으로 몰고 있는 윤석열 정권을 규탄하고, 윤석열 정권의 무자비한 탄압으로부터 건설노조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5월 1일 건설노조의 한 노동자가 분신하여 이틀날 돌아가셨습니다.

고인은 무법천지 부조리한 건설현장을 바꾸고 건설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권익 실현을 위해 헌신적으로 살았던

참된 노동자였습니다.

“죄없이 정당하게 노조활동을 했는데, 집시법 위반도 아니고 업무방해 및 공갈이랍니다. 제 자존심이 허락되지 않네요”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14차례의 압수수색, 15명의 구속, 1,000여명의 소환조사 등 건설노조에 자행한 무자비한 탄압이 초래한 비극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건설자본의 불법과 비리에는 눈을 감고, 오로지 건설노조를 표적 삼아 사상 유례가 없는 전방위적 탄압을 자행해왔습니다.

경찰은 건설노동자 수사에 50명 특별승진을 내걸고 '노조사냥'에 나섰습니다.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는 전세사

기 단속에 30명, 보이스포싱 수사에 25명이 배정된 것과 비교해도 이례적입니다. 실제 승진에 급급한 경찰들은 무분별한 건설노조 수사에 나섰고, 1,000여명 소환조사는 유례없는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이게 국가폭력이 아니면, 무엇이 국가폭력이겠습니까?

평범한 건설노동자들을 '건폭'으로 매도하고 정당한 노조 활동이 불법으로 둔갑하는 과정에서 정권과 경찰 지휘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돌아가신 양회동 열사는 먹고사는 게 힘들어 마흔이 넘어 노조활동을 하었다고 합니다. 열악한 건설현장에서 조합원들을 위해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너무나 기뻐했다고 합니다.

건설현장은 여전히 열악합니다. 얼마전 JTBC 뉴스에 나온 건설현장 노동자들은 잠시 쉴 곳도 없어 땅바닥에 박스를 깔거나 건설장비를 놔두는 곳에 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설현장은 지금도 1년에 400여명의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돌아가실 정도로 목숨을 내놓고 일을 해야 하는 너무나 위험한 곳입니다. 노조가 있기 전에는 다단계 하청구조로 임금을 수도 없이 떼었던 곳입니다. 그런 건설현장을 노조가 좀 더 안전한 곳으로 바꾸고 조합원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활동한 것이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일본, 미국을 다니며 이 나라 경제를 망치고 있고 나라 망신까지 시키는데, 국내에서는 노조 때려잡기로 지지율을 올리려고 합니다.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건설노조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을 당장 멈추십시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죽음으로 내몬 양회동 열사의 유족들에게 그리고 건설노조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십시오.

건설노조는 지난 20년간 정부와 건설사가 하지 못한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고 부실 공사로 이어지는 공기 단축에 대응해 싸워왔습니다. 건설노조가 바란 것이 엄청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 임금 떼이지 않고 일하는 것입니다. 양회동 열사가 돌아가신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무자비한 탄압을 멈추라고 자신의 몸에 불을 붙여 가장 고통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아직 장례도 못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원인이 됐던 건설노조에 대한 무차별적인 탄압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분신한 고인 앞에 사과하고 모든 노동탄압을 전면 중단하십시오. 건설노조 탄압의 앞잡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십시오. 진보당은 건설노조에 대한 국가폭력을 막고 건설노동자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2023년도 상반기 포토의정



농소1동 새해 현장토크(23.01.03)



농소2동 새해 현장토크(23.01.03)



농소3동 새해 현장토크(23.01.04)



송정동 새해 현장토크(23.01.04)



강동동 새해 현장토크(23.01.05)



효문동 새해 현장토크(23.01.05)



양정동 새해 현장토크(23.01.06)



염포동 새해 현장토크(23.01.06)

## :: 2023년도 상반기 포토의정



2023년 구정발전 신년인사회(23.01.09)



아동권리존중 프로젝트 성과보고회  
(23.01.30)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 발대식  
(23.02.15)



국민운동단체 명품복구조성 협약식  
(23.02.20)



북구실버케어센터 준공식(23.02.21)



상방경로당 준공식(23.03.09)



다함께 전문봉사단 발대식(23.03.15)



제4대 김태민 북구체육회장 취임식  
(23.03.15)



## :: 2023년도 상반기 포토의정



제78회 식목일기념 나무심기(23.03.15)



구국도31호 벚꽃길 점등식(23.03.28)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교육(23.04.20)



제19회 쇠부리축제 개최식(23.05.12)



수동중앙길 도로개설 준공식(23.05.31)



구군의회 선출직 체육대회(23.06.05)



송정복합문화센터 개관식(23.06.09)



울산숲 조성사업 기공식(23.06.29)

# | 복구의회 실시간 인터넷방송 서비스 제공 |



## ○ 서비스 개요

- 인터넷에 접속 가능한 모든 주민이 언제 어디서나 PC,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 기기를 이용하여 의회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서비스
- 주민들에게 복구의회 의사 진행과정을 생방송 및 녹화 영상으로 제공함으로써 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

## ○ 서비스 내용

- 복구의회 임시회 및 정례회 전 일정 생방송
- 복구의회 임시회 및 정례회 전 일정 녹화영상 영구 제공

## ○ 접속경로

복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kgu.ulsan.kr>) → 인터넷방송 메뉴 클릭 → 메인화면 ON-AIR 메뉴 클릭 → 해당일자 본회의 목록 클릭 → 영상화면 내 재생버튼 누르고 시청

### ※ 꼭 찬 화면 시청 방법

- PC : 영상화면 하단의 전체화면 마크 클릭
- 모바일 : 스마트폰 가로로 회전

## 의회 민원상담 안내

우리 의회에서는 주민과 소통하고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구정 및 의정활동 등에 관하여 주민의 각종 민원사항을 접수받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 방법 내용

민원인과 해당 지역구 의원과의 직접 상담 또는 현장방문  
 각종 민원 불편, 애로사항 상담 및 처리, 각종 여론 수렴  
 ※ 의원 부재 시에는 의회사무과(5층)에서 접수  
 전화 : 241-8994      팩스 : 241-8979

농소1·송정동	농소2·농소3동	농소2·농소3동	농소1·송정동	비례대표
의 장	부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의회운영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자치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복지건설위원장
<b>김정희</b>	<b>이선경</b>	<b>박정환</b>	<b>박재완</b>	<b>조문경</b>
의장실 : 241-8900 010-3469-1522	부의장실 : 241-8901 010-8545-0266	사무실 : 241-8902 010-9359-8572	사무실 : 241-8903 010-9697-7139	사무실 : 241-8904 010-5232-4625
농소2·농소3동	강동·효문·양정·염포동	강동·효문·양정·염포동	강동·효문·양정·염포동	
복지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b>김상태</b>	<b>강진희</b>	<b>손옥선</b>	<b>임채오</b>	
사무실 : 241-8907 010-3854-1103	사무실 : 241-8906 010-8610-4748	사무실 : 241-8908 010-7760-6745	사무실 : 241-8905 010-4844-5405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http://council.bukgu.ulsan.kr>

전 화 052) 241-8971~8975  
 F A X 052) 241-8979  
 주 소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연암동)

## 의회방청 및 견학안내



## 북구의회의 주인은 주민 여러분입니다!

북구의회는 주민 여러분께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의회 방청을 희망하시는 주민께서는 간단히 의회사무과에 신청하시면  
회의 진행과정을 생생하게 방청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주민 여러분의 많은 방청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 의회사무과(☎241-89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새 시대를 여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가 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http://council.bukgu.ulsan.kr>

전 화 052) 241-8971~8975

F A X 052) 241-8979

주 소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연암동)

홈페이지 [council.bukgu.ulsan.kr](http://council.bukgu.ulsan.kr)